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79 1981년11월25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November 2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NOV 2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대학교육·전문직세미나 성황

전공별대학선택을

2세들 부모의 전공강권에 항의

반드시 특정대학을 나와야만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과연 부모의 의사대로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만 이민2세로서 캐나다에 적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이 문제는 지난 21일 한인교육연구회와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공동주최의 대학진학및 취업안내 세미나에서 논의된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인문분과에 모인 학생들과 학부형들·계리사 김영주(우측 끝)씨가 공인회계사의 종류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학교육및 전문직종 안내"란 주제하에 학부형, 학생및 · 교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토시교육위원회 6층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토론토대학 교무처 입학담당자 엘런·힐씨는 "온타리오주의 각대학교는 제가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직장을 가지고 변호사나 회계사등 전문직 자격을 따는데 꼭 토론토대학 졸업장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학생 2 천명 규모의 트렌트대학과 학생 3만명 규모의 토론토 대학을 학생 숫자를 갖고 대학으로서의 질적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힐씨가 초청연사로 나와 온타리오주 각대학의 소개및 각종 장학금, 학비등 비교, 소개했다. 힐씨는 대학을 선택할 때 폭넓은 고려를 하라면서 부모들과 떨어져서 먼 곳에 있는 대학을 택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간단한 점심후 인문, 과학기술, 의학등 세 분야로 나뉜 분야별 토의가 이어졌다.

조성준씨가 사회를 맡은 인문분과에는 50여명의 학생과 학부형들이 모여 직업및 학과 선택에 관해 토론했다.

한인 유일의 변호사인 강찬영씨에게 질문이 집중. "변호사가 되는 길"에대한 문의와 "부모들이 법대진학을 강요함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고교생들의 날카로운 항의도 있었다.

강씨는 법대에 진학하려면 법대입학시험에서 적어도 630점을 따야 하며, "요즈음은 몇몇 대학들이 에트닉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어 사전에 자기의 배경 설명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모들의 법대나 의대진학 강권문제에 대해 한 학부형은 "어렵더라도 이상(理想)은 높이 두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학생들은 "부모들이 여기 대학 실정이나 사회를 모르면서 자식들의 전공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모인 각계 전문직종사 선배들은 이 문제는 부모의 일방적 강요나 학생들의 일방적 반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진학에는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심상수씨(CA)와 김영주씨(CGA)의 두 회계사가 회계사자격을 따는 방법을 설명했다.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과학분과(사회 신복균 박사) 토의에서는 이색적인 · 보험계리사(Actuary)주병돈씨가 보험계리사가 되는 길과 해당되는 대학의 코스를 소개했고, 대학을 마치고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받으면 연봉 4만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학생들의 공과대학진학 경향에 대해 "공대 졸업생들이 실내근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학생에도 적합하다"는 적극론과 "여성에게는 임산휴가등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꺼리고 있어 취업의 문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회의론도 있었다.

의학박사 구상회씨가 주도한 의학분과에서는 8~10년이 걸리는 의사가 되는 길은 어려우며, 의사직을 택한다고해서 2세의 장래가 반드시 보장되진 않는다는 논의등도 있었다.

이밖에 치과의사란 직업도 대단한 건강체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의대진학이 어렵더라도 병리학계통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선배들의 설명이 있었다.

이날 모인 2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세워야지, 부모들의 강권은 좋지 않다"며원하는 공부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그밖에 많은 선배직업인들은 "학부형들이 이곳의 대학제도등을 빨리 파악, 올바른 진학을 할 것과 특정대학 진학이 곧 장래보장의 지름길은 아니므로과 선택에 신중, 과목에 따라 학교선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한인사회에 유행되고 있는 고교 수석 졸업에 대해 "대학의 학제는 고등학교와는 별개문제다. 정말은 대학1학년때 한국의 대학입학시험 준비같은 공부를 해야 한다"며 한인고교 수석졸업자가 대학에서 실패도 하는 실정으로 보아 2세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나왔다.

여성및 원주민권에 합의

연방·9개주 정부

(오타와)연방정부와 9개주정부는 논란많던 여성동등권및 원주민권 보장권을 헌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했다고 장·크레치엥 법무상이 23일밤 전격 발표했다.

퀘벡을 제외한 9개영어사용주와 연방정부가 11월5일 이룩한 역사적인 헌법개정안 합의에 따르면 여성동등권및 원주민권에 관한 조항은 주정부의 재량권에 넘어가도록 돼있어헌법상의 보장을 요구하는여성들및 원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었다.

연방및 주정부의 의회토의전 합의에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등 야당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남북한전쟁 위험

북한국방차관 경고

북한의 박학림 국방차관은 22일 남북한의 긴장관계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력증강으로 남북한사이에는 언제든지 전쟁도발의 위험이 놓여있다고 말했다.

군사위원단을 대동 하고 남부아프리카를 순방중인 박중장은 남한이 미사일, 젯트전투기및 다른 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남한의 주요무기공급국인 미국과 남한이 또 다른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한달도 못되 번복

부총리직함 사용계획

(서울24일=연합)한국정부는 공무로 해외를 여행하는 장관급 관리들에게부총리란 직함을 쓰도록한원래의 계획을 취소했다고정부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관계와 다른 외부적 상황들을 들어 정부의 당초계획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동계획의 실질적인 철회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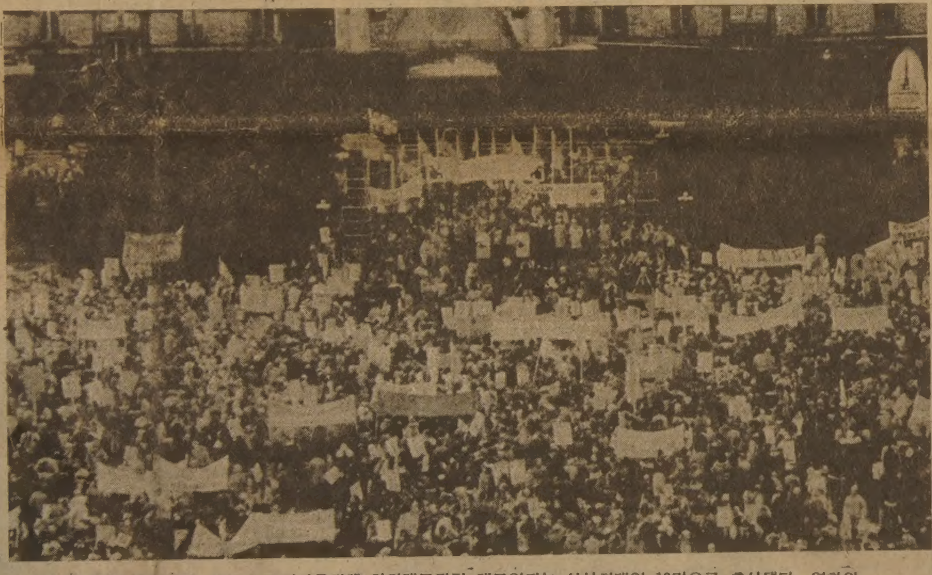
사상최대 10만군중

고이자율정책 항의데모

(오타와)정부의 높은 이자율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타와의 국회의사당앞에 모인 군중의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의사당앞에서의 항의데모중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이 대규모 데모를 주동한 캐나다노동총회(CLC)의 총회장 데니스·맥더못씨는 이날 연설에서 "11월12일의 연방예산안은 고이자율, 높은 실직율, 렌트인상및 식품가앙등에 하등의 해결책도 안된다"고 비난하고 "정부는 즉시 이자율을 내리고, 서민의 실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모인 농부, 노동조합원들, 주택소유자들은 이날 영하에 가까운 차거운 날씨에도 불구, 플래카드를 높이 처들고 20분간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서있의 고이자율정책 항의데모광경. 데모인파는 사상최대인 10만으로 추산됐다. 영하의 날씨도 이들의 열기는 식히지 못했다. 군데군데 모닥불이 피워졌다. 추위를 잊으려고 구호를 외쳐댔다.

브라질大學서 美對外정책 강연하던

키신저 前國務 데모隊에 망신

4백여 데모대 亂動…경찰護衛받으며 避身

(브라질-UPI) 18일 브라질대학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던 키신저 전미국무장관이 학생데모대들의 난동으로 강연을 중단한채 트럭에 올라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호텔로 피신했다.

이날 4백여명의 데모대들은 강연장밖에서 삼바북을 두드리며 달걀을 던지고 「양키는 가라」고 소리쳤다.

데모생들이 달걀을 던지자 키신저는 무사히 피했지만 옆에 있던 한브라질각료와 몇몇 대사들이 달걀세례를 받았다.

과격파들은 브라질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키신저에게 강연료로 1만5

국가의 남성대표들이 더욱 심한 차별대우를 한다고 말했다. 그한예로서 전유엔대사인 패트릭 모이니한은 「교수」타입으로 평가된 반면, 자신은 「여교장」이라고 별명이 지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보도진들이 자신을 고집세고 강철같은 여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녀는 발트하임사무총장만은 자신의 공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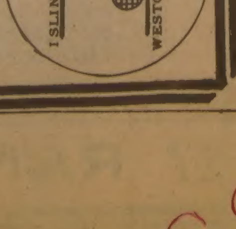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김장준비를 위한 특별세일

●새우젓(육젓)
●새우젓(취젓)
●황새기젓
●멸치젓
●멸치젓 간장
●김장용 고추가루(굵은것, 가는것)
●김장용 6쪽마늘
●김장용 굵은소금
●김장용 대파
●김장용 갓
●생조기
●오징어(LARGE SIZE)
●총각무
●무우, 배추(농장값으로 제공)

★이주간에 오시는분은 $100이상 사시면 무조건 5% 할인.
★멀리서 오시는분은 차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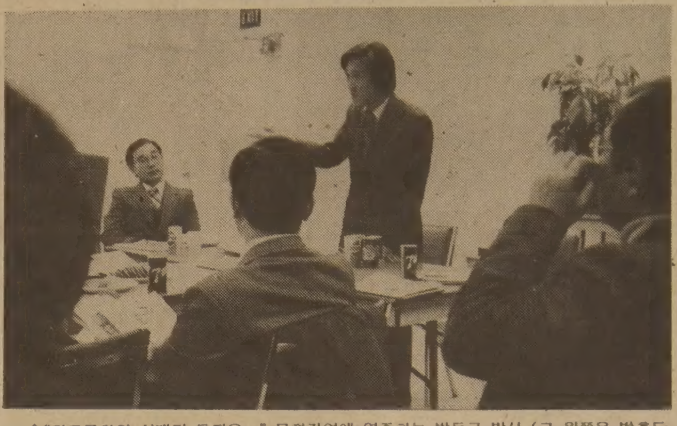
"한국소설 어제 오늘"(상)
박동규박사 문학강연

강사소개 : 현재 토론토대학 초청교수로 와있는 서울대학 교수 박동규 박사는 문학평론가·문학잡지 "심상" 발행인으로 유명하다. 서정파 한국대표시인중 한 명인 고 박목월(본명 영종)씨의 장남이기도 하다.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박충도)는 지난 19일하오7시 한인회관 강당에서 현재 토론토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박동규박사를 초청, 81년도 제5회 교양문학강좌를 가졌다.

문협회원과 문학에 관심있는 교포 30여명이 모인 이날 모임은 조정대 문협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이석현 문협고문의 인사말, 박충도 문협회장의 박교수 약력소개에 이어 박교수의 강좌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문학강좌는 한국소설의 1945년~1970년 간의 변모사항을 중심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대적인. 특성과 흐름」을 (1)산문문학 전개과정과 변모과정, (2)문인들의 문학활동 방향과 현황의 두 각도로 분석, 고찰되었다.



◇"한국문학의 시대적 특징은…" 문학강연에 열중하는 박동규 박사.(그 왼쪽은 박충도 회장, 오른쪽 끝은 이날의 사회 조정대 총무)

(1) 한국문학의 양상

박교수가 강의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을 겪은 50년대는 전쟁의 폐허가 빚은 허무주의가 팽배, 문학도 민족적 비극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와 허무주의를 주로 다루었다. 이때는 또의 국문학에 다량 접촉한 때이기도 하다. "비오는 날"(손창섭) "쇼리 킴"(손명수), "오발탄"(이범선) 등이 이같은 50년대의 문학성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60년대는 59년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으로 그 막을 열었다. 최인훈은 이소설에서 그동안 민족의 비극을 몰고온 사상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떠나 사상적 갈등을 다분히 추상적인 「사랑」이란 신호탄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썼다.

"무진기행"(김승옥)도그와 같은 부류다. 그러나이들은 사랑을 주제로 하나 청춘적 요소는 찾아보기힘들었다.

70년대는 격동의 시대로 문학적 양상은 다분히 반정부적, 반현실적인 요소를 띠었다. 박태순의 "정든 땅 언덕 위", "선생과 황태자"(송 영) "어둠의자식들"(황석영)등의 일련의 소설들은 어두운 바다사회 인생들이 좌절과 무기력속에서도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견디어 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특히 이들은 소설에 자유문제를 도입,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가 억압당한 바다사회 인생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갈등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들의 소설은 사회현실의 고발보다는 고민하는 한국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인간의 특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70년대말부터 문학사조는 "신감각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인간존재에 대한 새로운 회의로 현실 파악에 대한 각도가 달라졌다. 이들의 표현은 리얼리즘으로 감각주의 요소를 등장시켰으나 메타포(은유)의 방법으로 감각을 다루었다. 이들의 소설은 흔히 현대인들이 빠져들어가기 쉬운 '일상성에로의전락을 고발하며, 그 일상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했다. 이들은 또 빈부의 차로 뚜렷해진 "사회계층의 엇갈림"을 크게 부각시켰다.

시대에 따라 문학사조가 변천해 왔지만 옛부터 지금까지 한국문학이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문학의 "서정성"이다. 서정성은 한국적 정서의 기본이며,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것을 뛰어 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계속)

교민동정

◆김승택(서예가·전 토론토한인회 이사)=9월 21일부터 한달동안 서부지방을 순방하고 지난 21일 토론토로 돌아왔다. 친지·친척들을 두루 찾아 캘가리, 에드몬톤, 뱅쿠버에도 갔으며, 3일간은 록키산맥— 대자연의 품에 안겨 지내고, 밴프의 도천온천에도 들어가고…, "역시 대자연은 벗할만하더라"고.

한국일보
533-2361

「교회음협」태동
종교음악가들 모여

토론토 한인사회에 교회음악가 단체가 태동하고있다.

이미 두번의 준비모임을 거쳐 지난16일 한인연합교회에서 발기회를 가진 시내 8개교회 대표음악 인들은 이날 발기인 8명을 확정, 회명을「캐나다한인교회음악협회」로 정하고, 취지를 굳혔다. 12월10일 마지막 마무리모임을 가지고, 내년초 창립총회로 정식발족할 예정이다.

교회지휘자, 반주자, 교회음악에 관심있는 목사, 성가대장을 회원범위로 잡고있는 이 협회는 교회음악인들의 친목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악보교환, 합동연주회 계획, 상호유대강화를 취지로 삼고있다.

◇발기인 : 박재훈(연합)유회자(선교), 이주연(벧엘) 백효중(한인장로), 문남귀(새한), 최영호(충현), 조문의(임마누엘), 송관현(영락)

〈한국일보－토론토〉에 답한다.
—"한인연합회에 촉구한다"의 사설을 읽고

오기송 (한인총연합회장)

편집자주 : 이글은 지난9일자 본보 사설"해야할 일들"에 대한 한인총연합회장의 답변의 글이다.

◇오기송씨

"연합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설자(社說者)는〈한국일보－토론토〉1981년 11월9일자에 "한인연합회에 촉구한다"는 사설을 게재한 것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우선 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감사한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그러나 사설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에는전국적인 범위에서"한인의날"의 행사를 성대히 가질수 없음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연합회가 자진해서 정해놓고 첫해부터 한인의 날을 실시안하는 태도는 정상적 상식으로는 납득할수 없는처사"운운하는 혹평을 했다.

"한인의 날"을 성대히지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작성으로부터 그랜트를 받기까지는 보통 4~5개월이 걸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5개월밖에 남지않은 시일을 앞두고 그랜트를 받는등 큰 행사를 진행시키기에는 너무나 준비상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새로 회장직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첫 수개월 동안은 조직을 해야하고, 앞으로 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이와같은 준비단계를 밟은 후에라야 필요한 행동을 취할수있는 기간임을 감안할 때에, 대행사를 실시할수 있는 여유가 있을수 없음은 일을 하여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는 상식이 아니겠는가? 사실 4년의짧은 역사를가진 연합회는재정면으로나 조직 운영면에 서볼때에 너무나 빈약하였다. 연합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시간을 대가(代価)로 극복하는 길밖에 없었다.

덧붙여 두번째로 어려웠던점은 전교포 인구의 4분지3을 차지하는 토론토 한인회의 협조를 받을수없는 딱한 형편이었다. 연합회의 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토론토한인회는 지난봄부터 여름에 걸쳐서내분으로 인해서 토론토한인회장이 연합회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할수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전국적인 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할수 없음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사설자가 한인회에 관심이 깊고, 토론토에 거주하는 인사라면 이러한 불가피한 어려움을 잘알고 있었을 터인데, 내용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눈을감고형식만 따져 회장직을 맡았으니 기일관계야 어쨌든간에"한인의 날"을 지켜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설법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조잡한 생각이 든다. 동신문은 이점에 관해서 이미 두번이나 연합회를 나무랐다.

다음으로 사설자는 2년임기중 6개월밖에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마치 연합회가 끝장을 본것처럼 훈시겸 나무랐다. 연합회장은 훈시에 대해서는 노파심으로 생각하여 감사히 생각하나, 나무람에 대해서는좀 설명이 필요할듯 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잘못비친 여론을 바로잡고, 연합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올바른 인식을 가져올수있기 때문이다.

사설자는 다음과 같이교시하고, 연합회가 한시바삐 생기있게 움직여 주기를촉구한다 고 경고했다.

"그 밖에 연합회가 할일들은 수두룩하다. 교포에관한 각종 통계작성, 공통된 교민의 애로사항접제, (현 연합회의 형편에서는 상기 통계사업은 당면과업으로 되지 못하거나 능력에 넘치는 일로 될 것이다. 필자주) 및 캐나다 정부에의 진정, 건의또한 주재대사관을 통한 모국정부의 지원요청, 이곳에서의 이민증대 노력, 2세들의 진학과 직업진출 방향제시도 연합회가 할일이다." 다시 뉴스레타를 통해서 지난5~6개월간 진행시킨 사업들을 종합하여회원들에게 자세히 보고할기회가 있겠으나 여기에서서 승치 않고 확실히 말할수 있는것은 사설자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생기있게" 많은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래 큰일이란 세월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법이고, 장래를내다보면서 기초를 다지는사업이기 때문에 선전적인효과는 크지못한 법이다. 현 집행단은 2년의 임기를 활동단위로 잡고 첫 반년은 이미 발표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행하기위한 기초작업을 다짐과 동시에 먼 시야에서 교포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쉽게 눈에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몇가지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현 연합회의 회칙의 중요한 결함은 이사회에대한 조항의 미비이다. 이러 한 미비는 연합회의 법인단체로서의 인가를 불가능케한다. 그러므로 현 회장단은 현회칙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동시에 몇가지 개정 을 단행하여 각 회원의 결의를 받는 절차를 마쳤다.

2)과거 두 회장단이 성취하지못한 총연합회의 법인단체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로서 비영리단체로서의 면세허가도 받을수 있게되어 앞으로 기부인사에 대한 면세혜택을 베풀수 있게 되었다.

3)현회장은 인종및 민족문제에대한 복합문화장관 의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이미 2회에 걸쳐서 연 4일간의 회의를 통해 한국교포에대한 문제해결의 방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한 조처를 취하도록 결의하는 활동을전개했다. 몇가지 예를들면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나 치과의같은 전문직에 대한 교포들의진로에 대한 재고려(한국에서 받은 이러한 전문직은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치 않고, 처음부터 재출발케 하는 형편이다.) ●자동차 면허와같은 단순한기술시험에 관해서는 통일적으로 한국말로 시험을 받을수 있게 하는조치. ●직업채용에 있어서 "캐나다의 경험"또는"동등교육자격"용어를 구사하여 교묘하게 차별대우하는 방법철폐. ●소수중 소수민족인 한국교포에대한 육성조치, 특히 대민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랜트등 고려할것. ●흑인들의 한인교포상에 대한위협, 방화, 살상에대한 대책강구.

4)각종 민족회의에 참가함(3일간). 김광오 사무총장에 의한 퀘벡주에서의 차별언어정책(Bill 101)과인권침해정책에 대한 철폐결의통과. 이는 33개 민족대표가모인 민족회의에서 다섯가지 중요결의를 채택하였는데, 그중의 하나이다.

5)한국교포 이민증가를위한"교포배가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하기로하여 뉴스미디아를 통한 선전과 지방한인회를 통한 서명운동도 고려중임. 이미 강조를위한 한·카 양국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계속하여 앞으로도 이민강조의 논설발표 계획이다.

6) 1982년도에 실시할"한국의 날"행사의 내용 충실을 기하기 위한 활동은 이미 시작한지 오래다. 연방정부, 재외공관 방문은 물론 서울까지 방문하였다.

7) 김원경 박사를 의장으로 하는 교포문제 심포즘의 진행, 여기에는 2 세 교육문제도 포함된다.

8) 이민사를 쓰기 위한 그랜트 신청과 저자물색에 대한 추진.

9) 부녀회 조직에 대한 협조(부녀회에 관해서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연합회 회칙에 신설 부가하였다.)

10) 연합회의 예산편성과 재정염출에 대한 대책강구.

11) 연합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초작업을 다지기 위해 수백통의 서신, 장거리 전화및 많은 인사와의 개인 접촉이 있었다.

연합회는 유급사무원 한 사람도 없는 형편에서 광대한 지역을 주름잡는 이상의 활동전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교포사회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연합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시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쳐서 봉사하는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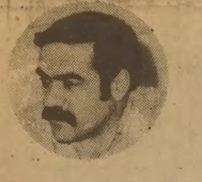
불황이라고 하지만 부유층을 상대하는 고급품은 날개 돋힌듯 팔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제5계절

뿌리를 찾기까지(상)

안토니오·코레아



몇주전 한국일보사의 김명규 발행인을 만났던 영광을 가졌다. 신문에 기고할 원고를 가지고 신문사에 들어선 순간 나는 신문사가 아닌 다른곳에 왔나하고 잠시 망서렸다.

내가본 신문사는 목공소를 연상케 하였다. 전기톱, 목재, 합판, 석면, 벽을 허무는 인부들, 이런 와중에서 하얀 샤스의 팔목을 걷어부치고 동분서주하는 남자가 있었다. 건축청부 업자쯤되려니 생각했던 나의예상은 몇분후에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그가 바로 김사장이었다.

그는 나를 이층으로 안내했다. 이층도 아래층과 별다른게 없었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 혼돈과 소음의 와중속에서도 아랑곳없이 망치가 아닌 펜을 들고 열심히 일하는 인부(?)들이 있었을 다름이다.

신문사건물 전체를 개조수리하고있는 혼돈 속에서도 신문발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평소 나는 모든일에 활력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존경했었다. 김사장이 이런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인들은 혈연, 지연을 매우 중시한다며 4세기전 한국을 떠나 이태리에 정착한 한국인후예안토니오·꼬레아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신상이나, 내가족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이야기 하고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즐거움의 소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소찬을 만들겠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수십대 선조로부터 현재 생존해있는 자손들의 이름이 일일히 적힌 소위"족보"라는 책을가지고 있으며 이 족보는 자자손손 대대로물려내려간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기발한 생각이라고 평소 생각한 나는 나의 조상들도 족보를 만들었다면··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진다.

불행히도 내가 태어난 마을에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나의가족중 누구도 족보를 만들거나 가진사람이 없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10대의 사춘기시절 사는 내가족의 뿌리에 대해서 궁금해했으며 여러번 꿈속에서 조상들이 왕으로, 적으로 또는 도적떼들로 둔갑해서 나타나곤 했다.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린 나는 어느날 가족의 뿌리를 찾기로 결심하고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나의 기괴한 질문에 놀란 면서기는 "쓸데없는 데 신경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궁리나 하라"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나 나의 태도가 퍽 심각하다고 느낀 면서그는 나의 요청을 마침내 수락하고 시간나는 대로 나의 조상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었다.

나의 어머니쪽으로는 4대까지 거슬러 올라 갈수 있었으나 아버지 쪽으로는 증조할아버지대 밖에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실망의 늪에 빠진 나를 건져줄 사람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면서기는 실망한 나를 위로하며, 1860년경 부당한 법집행에 반기를 든 마을여성들이 시위를 하다 면사무소를 불태우는 바람에 매우 중요한 문서와 기록들이 거의다 소실되어 그 통에 마을사람들의 호적도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다.

면사무소에서 알아보기를 포기한 나는 그후 여러달에 걸쳐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계속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알아낸것이라고는 조부와 증조부에 대한 약간의 정보였다.

그들은 기술공 이였으며 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의자나 말·당나귀 안장등을 만드는 수공업소를 운영했으며 무엇보다도 나무통제조업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들이 만든 나무통 (술을 담기위한것)의 품질은 당시 그 지역에서 제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지적이며, 온후하고 조용한 사람들로서 자신의 사업에 충실한 반면 불의를 보면 참지못하는 성격도 가졌다고 전해졌다.

(계속)

필자소개 : 이탈리아가 낳은 시인 안토니오·코레아— 일찌기 임진왜란때 불모로 일본에 끌려간 한국소년「안토니오·코레아」가 이탈리아로 이민(유학)한 그 먼 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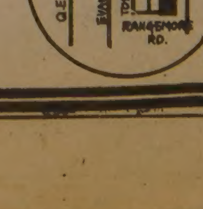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한국인의 도매상 ——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Regular	Special
Chocolate All Brand	36's	$ 10.69	$ 9.89
Dristan Tablet	6x24's	11.00	9.98
Dristan Nasal Mist	6x15ml	9.55	8.79
Bicycle Playing Card			18.95
"Bic"Lighter Blister Package			.69
Duracell Battery	'D'		24.69/Dz.
"	'C'		"
"	'AA'		19.95/Dz.
"	'AAA'		"
"	9V		21.95/Dz.
Glad Garbage Bag	24x10's		33.29
Bee Hive Corn Syrup	12x1L	19.75	17.79
Jello Jelly Powder	24x3Oz.	14.35	13.65
"	24x6oz.	17.55	15.85
Libby's Deep Brown Bean Tomato Souce, Pork	24x14oz.	16.55	13.39
Unico Tomato Paste	24x13oz.	19.45	17.45
Fluffo Shortening	36x1LB.	29.40	26.50

		Regular	Special
Brown Cow Chocolate Syrup	12x400ml	16.55	14.59
Quench Crystal Pouch	4x92g	1.58	1.09
Pablum Baby Cereal	12x16oz.	22.80	20.49
Kal Kan Cat Food	24x6oz.		6.99
Canada Dry(all flavour)	24x10oz.		5.79
Nestea	"		5.49
Wilson Crush	"		5.29
Cottonelle Tissue	24x4's	35.05	32.35
Viva Paper Towel	18x2's	25.55	18.69
Kleenex Facial Tissue	72x100's	34.45	31.00
Leaf PAL Bubble Gum	240x2¢	3.59	3.19
Mike and Ike Candy	24x25¢	4.35	3.95
Smoked, Roast Almond	24x35¢		5.99
Bozo Bubble Gum	24x25¢	4.35	3.95

그외에도 다양한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27 RANGEMORE RD. TOR. 전화 : 251 — 6578, 6579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수상 2제 (중)

유 인 형 (문협회원)

챠 스 타

「아주 큰놈이야. 부상당한 붉은 곰은 대단히 위험해. 자네들도 조심하게. 사람이고 가축이고 닥치는대로 해친단 말이야.」

챠스타는 자기가 매어놓은 배를 빌려주었다. 섬 근처의 낚시터와 수심을 가르쳐 주었고, 안전수로를 설명해 주었다.

우리들은 신바람이 나서 어장을 찾아갔다.

「사람이란 좋은 일을 해야 돼. 인디안 아가씨를 잘태웠지?」

「그럼, 여어 경치 한번 좋고!」

「어따대고 그걸 내놔?」.

「헤헤, 고기들이 놀라 인사하러 올 거야.」

옐로우 퍼치도 그렇게 큰 놈들은 처음 보았다.

「허옇게 눈먼 고기들만 물리는군. 가자구.」

팔뚝만한 피쿨이 정신없이 물려 주었다.

배를 돌리었다. 펠리칸은 큰 새였다. 그 부리가 몸 길이만큼 길어 보였는데, 하늘로 날아오를 때와 수면으로 내릴 때엔 요란스러웠다. 배를 매어놓고 챠스타네 집으로 향하였다. 그의 집은 무인도와 같은 숲속에 있었다. 소음이라곤 솔바람 소리와 산토끼들이 뛰어다니는 수풀소리뿐이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었다. 챠스타는 곰가죽을 벗기고 있었다. 한적하고 따분할 정도로 홀가분한 그런 분위기였다. 서로 술잔이 몇번 오가자 경계의 눈빛을 풀고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우린 오십여개의 언어가 있었어.」

덩치 큰 챠스타는 인디안들의 멸망을 언어에서 찾아주었다. 광활한 숲속에 흩어져 사는 그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안되었던 것이다.

「타락했지. 이젠! 술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자기들의 종교까지도 주니까. 생각까지도 자기들과 똑같아야 한다는 거야.」

「인디안이 인디안 방식으로 살면 야만인이다. 이 말씀이군?」

「이봐, 본토인이라고 표현해. 자꾸 인디안 인디안 그랬다간 한방 맞아. 이 친구야.」

이형은 그래도 조심성이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이었다.

「곰 쓸개를 뭐라고 해? 곰쓸개 있느냐고 물어봐.」

「가만 있어 좀. 곰쓸개까지 빼앗아 가면 백인들과 무엇이 달라?」

「쳇, 고상한 척 말아야.」

챠스타는 우리가 싱긋 웃자 자기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 산열매와 물고기들이 지천이 아닌가.」

잡초나 나무도 조상의 혼령이 스며 있기에 함부로 꺾거나 밟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소유란 조물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의 원시적인 신앙은 모든 생물에게 똑같은 손길로 사랑해 준다는 것이다.

「이 숲과 호숫가에서 들소떼의 멸종을 지켜보았네. 들소는 우리들의 식량이었는데, 저 친구들은 장식물에 들소뿔이 필요했나 봐. 이젠 야생말도 없어졌고, 독수리도 어디로인가 날아가 버렸네. 풀과 나무까지 모조리 불태우고 파헤치면 결국 우리도 사라져 버리겠지. 숲속의 안개와 산새소리까지 없어지면 인디안과 같이 사시던 신(神)들도 떠나야 하네.」

챠스타는 독백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원형의 냄새는 성실한 것이었다. 거짓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체념이었다. 먹어도 항상 기갈이 나서 아우성쳐 대는 소비사회에선 들어볼 수 없는 음성이었다.

「또 오게나, 친구들!」

우리는 뛰노는 산토끼들을 바라보며 챠스타와 악수를 하였다. 한없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어디서인가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오고, 인디안들의 축제가 벌어질 것만 같다.

「이봐, 곰쓸개는 어쩌구?」

이형은 투덜거리었다. 저녁을 짓는지 연기가 여기저기서 솟아올랐다. 풀과 나무와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같이 평화스럽게 공존하자는 저들의 염원처럼 연기가 솟아올랐다.

어째서 문명의 동화를 거부하고 자꾸만 깊숙이 숨어버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챠스타는 오랫동안 손을 흔들며 서있었다.

뱀프에서 쟈스퍼로

럭키산맥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장엄하다. 장미빛의 타는 노을이 백년설 위에 반사되면서 그 시원함과 신비로움이 덮이어 온다.

(계 속)

庶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YOU CAN COUNT ON US.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에 peace treaty(평화조약)를 가로 막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Middle East(중동)로 떠나는 Secretary of State Vance(밴스국무장관)에게 당시 Carter 대통령이 I'm counting on you. 라고 말하였다。count on이란 「믿다, 기대하다」는 뜻이니, 「당신을믿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비행기회사나 은행같은 곳의 TV commercial(TV 상업광고)을 보면 역시 You can count on us. 라는 큼직한 문귀를 보게되는데, 다 같이 「고객 여러분께서는 저희를 믿고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라는 말이다。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는 친구에게 「내일 모임에는 꼭 나오리라고 믿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Can I count on you for tomorrow's meeting?같이 할수 있다。여기에대한 대답으로 「나를 믿어도좋다。꼭 참석한다」라고 대답할 시는 You can count on me. 이렇게하면 될것이고, 또한「그 친구는 믿을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때는 You can't count on him이라고 한다。이때, count on은 미식발음에서는 중간의 t가 아주 약하게 발음되기때문에 결국은「카우넌」처럼 발음되고있다。

A : Sue, can you drive Jane and me to the doctor on Monday?

B : I think so.

A : We need a ride very badly. Are you sure you'll be able to help out?

B : Sure. I'll mark it on my calender so I don't forget.

A : Thanks. You're a good friend.

B : You can always count on me when you need help.

A : 수, 월요일에 제인하고 나를 의사에게 좀 태워다줄수있겠니?

B : 태워다 줄 수 있을것 같애。

A : 차편이 몹시 필요하단다。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B : 물론이지, 잊지않도록 내수첩에다가 기입해 놓겠다。

A : 고맙다。너는 참 좋은 친구야。

B :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나를 믿으면 된단다。

※need~very badly: 몹시 필요로 하다。Ex. I need to see you very badly. 당신이 정말 보고싶다。help out: 거들다, 돕다。mark on a calendar: 약속수첩에 기입하다。Ex. Did you mark my birthday on your calendar? 내 생일을 당신수첩에 적어 놓았어요?

교민의 벗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본사 광고국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⑨⑦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목사도 역시 가꾸미를그냥 놔두지 않았다. 그는비록 이누이트말을 못했지만 그는 이 에스키모에게 작은 예수의 영상을 새긴 선물을 주었다. 에스키모는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기대하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부적주머니에 매달았다. 그때는 겨울이 거의 끝날 때였기 때문에 가꾸미에게는 긴여행이 남아있었다. 목사와 무역자는 그가 북쪽으로 빨리 떠나는것을 보고 싶었다.

다시 가꾸미는 상점으로 불려가서 많은 물건들을받았다. 그가 받은 물건들은 욕심으로 가득찬 그를 아찔하게 만들었는데 그물건들을 아주 주는것이 아니고 털을 갖고와서 갚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겨울에 그가 털만 가지고 오기만 하면 지금 썰매에 실린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주겠다는것을 다짐 받았다.

무역소의 대장에는 "가-꿈-이"라고 적혀있고그 뒤에 "에스키모땅에서 온 원주민과 통상을 맺다." 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목사의 마음속에는 가꾸미의 이름이 새겨져있었고, 또 "이사람이 북극에 살고있는 불쌍한 많은 무종교자들중에서 개종에 성공한 첫번째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백인은 좋은 계획을세워 열심히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가꾸미를 한남자로 인정했지만 가꾸미가 샤만으로써마귀같은 사람이라는것을 눈치 채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획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에스키모가 무역소를 떠나 북쪽으로 향한지 삼주일도 못되어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그는 잘 먹어 기운이 왕성한 개들을 강 북쪽으로 몰고 올라갔고한번도 쏘지않은 구경 44-40 라이플을 가죽끈으로 매서 어깨에 메고갔다. 썰매는 잔뜩 물건을 실어서 앞에서 혹은 뒤에서 밀고 당기면서 걸어가야 했다.

이 조그만 그의 행동을 봐도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에스키모는 자기가 썰매를 탈 수 있을때는 짐의 일부를 버리더라도 절대로 걷지않는다는 것은 거의 격언처럼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가꾸미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자신이 걸어갔다. 큰썰매는 강위에 얼어붙은 험한 어름위를 지날때마다 무겁게 삐걱거렸고 개들은 질마에 묶여 얼마나 힘들게 끄는지 머리가 발에 닿을 것만 같았다. 여정은 대단히 늘어났지만 가꾸미는 전혀 이를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숲속에서 나온다는 귀신도 개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털난 백인의 부적을 차고 있는데 무엇이 무섭단 말인가? 또 그의 등에 좋은 총을 짊어지고 있는데 인디안들이 왜 무섭단 말인가? 그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동안 샤만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의 열정이 그의 넋을 태우던 것처럼 강한 기쁨이 그의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이사건이 있은 후에 인디안들이 이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꾸미가 떠난 며칠후에 그를 해칠 목적으로 인디안들이 추적해왔다.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 인디안들은 그목사가 잘아는좋은 사람들이었고 그 에스키모를 다치지 못하도록주의를 받았을 터였으니까말이다. 그러나 이들 젊은다섯 인디안들은 외부에서빈손으로 와서 지금은 이델엘멜리의 족장들보다 더부자가 되어 떠나는 길이니까 그물건중의 일부를 뺏고 싶었을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 두개의 종족사이에 있었던 피의 원한은 많은사람이 알고 있는것보다 훨씬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긴 해도 그들이 이 에스키모인을 죽일 맘이 있었다고는 믿지않는다.

나는 다만 그들의 동기를 추정할 따름이지만 어쨋든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갔기때문에 가꾸미의 지나간 자취가 선명했다. 그는 밤에 크게 불을 피워놓고 썰매에 싣고 온 이상한 음식들을 실컷 먹었다. 그는 그 땅과 그귀신들 혹은 그 사람들까지 전혀 무서워 하지 않았다.

그가 무역소를 떠난지열흘이 됐을때 인디안말로는 「사람이 자는 모양의 섬」이란 의미를 가진 「뉴엘틴 뚜아」의 남쪽 기슭에 도착했다.

(계속)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및 새해에는 한국일보 1년 구독권($99)을 만들어 선물 하십시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또는 친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애인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한국일보는 오직 교민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않고 봉사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 광고부
533 · 2361

Kim's 미용실

새로운 스타일의 민감한 컷트와 파마 전문

금번 저희 미용실 내부를 확장 수리하여 교민께 더욱 봉사코자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신부화장전문
●드레스 대여
●남.녀 파-머 환영
●세련된 커트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

광고 신청은
한 국 일 보 사
●일반광고-테레사
●매매, 구인광고-Mrs.리
☎ : 533-2361

매매 합니다
$25000 + STOCK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國會, 解除건의안 내기로

이번會期 滿場一致 채택合意

3黨重鎭회담 國保衛特措法도 폐지건의 教育稅、財産稅 부가안해

내년부터 接敵지역과 軍事지역등 일부 安保취약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夜間通行禁止가 해제된다。

民正·民韓·국민당과 議政同友會 간부들은 19일하오 서울 汝矣島 全經聯회관에서 重鎭회담을 갖고 이같은 해제원칙에 합의했는데 국회는 이번 會期안에 通禁解除에관한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방이후 36년간 실시되어왔던 通禁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내년초 해제되게되었다。

이날 회담에서 통금해제건의방법을두고 民正黨은 국민당이 이미 제출해놓고있는 통금해제건의안을 與野가 공동발의할것을 제의、民韓黨、議政同友會도 원칙적으로 찬동했으나 국민당은 自黨의건의안을 받아줄것을 요구했었다。

民正·民韓·국민당의 黨3役등 重鎭과 議政同友會회장등 정당간부들과 鄭宗澤정무제1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또 88올림픽에 대비、국회내에「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한편 이미 與野간에 의견을 모은바있는「國家保衛에 관한 특별조치법」과「8·3措置」에 관한 폐지건의안을 이번회기내에 처리키로했다。

한편 이날회담에서 民正黨측은 교육세중 재산세에 부가부분을 삭제하는대신 금융·보험업의 소득분에 0.5%를 부가하고 교육세를 신설하자고 제의했으나 民韓·國民黨이 반대해 합의를보지 못했다。

與野간부들은 來週에 다시 모임을 갖고 이날 未決된사항들을 再論할 방침이다。

◇정기국회 막바지에서 稅法과 세제, 예산안 削減문제로 팽팽히 맞서오던 與野는 19일 저녁 마련된 3黨간부회담에서 對話를통해 夜間通禁해제건의등 뜻밖의「大作」(합의)을 만들어냈다。

"國民희망 地自制등도 해결"

權 民正黨總長

야간 通禁해제를 제의한 民正黨은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등 국민들이 희망을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해결되지않고있는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을세운것으로 알려졌다。

權正達사무총장은 20일『국민에게 제약을가해오던舊시대의 낡은제도를없애고開放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통금해제를 정부측에 건의키로했다』고밝히고『통금해제 실시시기를 사전준비 보완작업이 필요하기때문에 1월1일로 못박을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이번國會會期안에통금해제건의안을 처리、정부측에 移送하면 정부가 치안문제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실시시기를 정하게될것』이라면서『그러나 정부측에 가능한한 빠른시일안에 통금이 해제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尹碩淳사무차장도『통금해제를 전국적으로 하느냐 부분적으로 하느냐하는 지역선정문제와 실시시기문제는 未定』이라면서『경찰人員增員문제등은 아직 확정되지않은상태』라고 통금해제의 早期실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또『接敵지역과 해안선은 대간첩작전수행등 안보상 이유때문에통금해제가 곤란하다』고 전제한후『그렇다고 釜山、仁川을 비롯、群山、麗水、木浦、忠武、鎭海、馬山、蔚山、浦項등 많은 항구도시등을 해안선이라는 이유로 묶어두는것도 어렵기때문에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가능한 항구도시는 해제지역에 포함될것으로본다』고 전망했다。

尹차장은 이어『통금해제문제는 5、6일전 합의를 보았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를포함、아직 미해결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내년3·4月 實施될듯"

李民正총무 3黨、국민당修正案 채택키로

民正·民韓·국민당총무들은 20일하오 국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通禁해제건의안중『내년1월1일을 기해 해제한다』는 부분을『조속한 시일내에』로 고친 단독修正案을 제출할경우 民正·民韓黨이 이에 찬동하는 형식으로 이번會期안에 처리키로했다。

이날 총무회담이 끝난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조속한 시일내라는것은 오는 시일을 뜻하는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李東鎭국민당총무는『내년3、4월정도가될것』이라고 말했다。

총무회담은 또 국가保衛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8·3조치 폐지건의안을 民正黨이작성、각당의 連署를받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했으며 올림픽지원特委구성도 民正黨이 文案을 작성、각당합의를거쳐 오는26일 運營委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회담은 교육세문제를 再論했으나 民韓黨의 高在淸총무가『재산세에 附加대신 금융보험업收益에 0.5%를 부가하더라도 黨論이 목적세인 교육세신설을 반대하고있어 응할수 없다』고 말해 계속財務委에 넘기도록했다。

총무회담은 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국회재무위 稅法小委활동에대해 논의했으나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稅法小委활동時限을 오는 25일까지 연장、豫決委활동시한과 보조를 맞추도록 결정했다。

印尼國會議長 접견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인도네시아의 다리얏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丁來赫 국회의장、金容烋총무처장관、나수치온 駐韓인도네시아 대사가 배석했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 여사도 같은 시간에 다리얏모국회의장 부인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國際올림픽위원회 에르조그委員등도

全斗煥 대통령은 20일상오 청와대에서 모리스·에르조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프랑스)과 필립·샤트리에 국제테니스연맹(ITF) 회장을 접견、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李奎浩문교장관、曺相鎬대한체육회장、李鍾綠대한테니스협회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자이레의 렌제마외무차관을 접견했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稅法·豫算삭감 一括타결키로

財務委小委 활동時限연장

국회財務委는 20일하오5시 전체회의를 소집、20일로 심사時限이 끝난 稅法小委의 심사활동을 오는25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稅法小委는 그동안 합의를 보지못한 교육세신설문제를비롯 소득세의 人的控除、근로소득공제、교육비공제대상、특별消費稅의 품목세율등에대한 再審을 벌이게된다。

이날 鄭順德 小委위원장은『시한을 연장키로 한것은오는26일 豫決委의 세출부분에대한 計數조정이 끝나는것과 步調를맞춰 일괄처리토록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旅券代行업자 소집 外務部 問題點협의

외무부는 20일 상오 旅券수속을代行해온58개업체、80개의 海外진출업체및 관계부처와 각市道직할시 관계관을 중앙청회의실에 소집、지난8개월간의 여권발급실적 분석과 문젯점및 보완대책등을협의했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관련業體와의 간담회를통해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라派生되는 ▲변칙여행▲불법체류자및불법입국자▲外貨도피▲犯法者도피▲僞裝이민의 증대등각종부작용을 제거하기위해 관계법령의 개정필요성을 설명하고 유관기관및 업체의 협조를 아울러 당부했다。

"通禁해제 來年중 빠른時期에"

徐內務 接敵·海岸·安保 취약지 除外

戰警 1만6천명 追加增員필요…犯罪투망식團束

訓鍊期間 3개월·6개월擇一따라 實施시일 決定

◇徐廷和내무장관은 20일『통금해제는 경찰관증원등 대비책이 마련되는대로 내년중 빠른 시기에 실시할방침』이라고 말했다。

徐廷和내무장관은 20일 하오『통금해제문제는 앞으로 정부당국이 경찰의 인력과 장비、이에따른 예산확보등 대비책이 마련되는대로 내년중 빠른 시기에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徐장관은『통금의 전면해제는 어려울것 같아 접적지역이나 해안지역·대공취약지역등지에서는 이의 실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徐장관은『통금해제지역의 범위결정에 따라 전투경찰관의 증원폭과 장비 예산등의 범위가 결정될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내년중원신청된6천5백명을 제외하고도 1만6천명의 전투경찰관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경찰관이 증가되는 수에따라 모집、교육및 근무지조정등을 해야하며 또 단기교육(3개월) 장기교육(6개월)을 어떻게 시키느냐가결정돼야 하기때문에 여건조성에따라 통금해제시기가 결정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徐장관은『통금해제는 내무부자체에서도 일차적으로 검토해왔던것으로 국민들의 편의위주와 경제발전·복지사회건설이란 측면에서도 제5공화국의 개방체제라는 지도이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徐장관은 또『통금해제를 구상하게된것은 다시한번 사회혼란이 일어나면 안보와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것이라는 국민적 자각이 성숙한 것으로 판단됐기때문에 취해진것』이라고 말하면서『경찰의 인력과 장비등 대비책이 강구되더라도 통금해제이후 국민들의 자율적인 질서의식의 확립이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徐장관은 또『통금이 해제됐다해서 해방감에들떠 밤늦게까지 소란행위를 피운다든지 소비성향만 조장하는 행동을 해서는 본래의 목적과는 크게 빗나갈 것』이라고 당부하고『통금해제후의 강절도·폭력범을 막기위해 전경찰력을 동원、투망식집중단속을 계속하겠다』고말했다。

文化協定등 체결 한국·자이레

金東輝외무차관과 訪韓중인 아프리카 자이레의 렌제마外務次官은 20일 상오 외무부회의실에서▲무역협정▲경제·기술·과학·사회및 문화협력협정 ▲문화협정등 3개 협정을 체결、양국간의 交易및 문화협력관계를 증진키로 합의했다。

韓日관계 改善용의 스즈끼日首相

【東京20日AP=聯合】스즈끼(鈴木善幸)일본수상은 20일 한일관계를 개선할 용의가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즈끼 수상은 이날 위축된 한일관계의 개선을위해 노력하라는 야스이·겐 한일의원 연맹회장의 요청에대해『한국이 중요한 서방국가라는 사실을 알고있다』고답변했다。

양국관계는 한국정부의 대일60억달러 차관제공 요구와 관련된 문제로 수개월째 가장 위축된 상태로 떨어져있는데 한일양국정부는 두차례의 외상회담을 비롯、최근 몇개월간 일련의 쌍무회담을 가졌으나 60억달러 차관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룩하는데 실패했다。

全공무원·傘下직원 80여만명 特別교육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1월까지 전공무원과 정부산하단체 임직원등 모두 80여만명을 3단계로 나누어特別經濟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총무처에서 마련한공무원경제교육계획에 의하면 이번경제교육은 1단계로 오는25일부터 在京5級이상공무원과산하단체 任職員을대상으로 실시되고 2단계는12월14일부터 市道청소재지 근무5급이상공무원과 산하단체임직원을、3단계는 내년1월중6급 이하공무원및 그에 준하는 산하단체직원을 대상으로 각각하루6시간씩 실시된다。

社會漫評

"이게 바로「기적」이구나…"

地平線

남녀의 구별이 어떻게해서 생겼느냐는 문제에 대해 미국의 오하이오주립 웬트 대학교의 오웬·러브조이교수는 퍽 재미있는 이론을 펴고있다。사람은 딴 동물과 달라 어린아이를 한번에 하나밖에 낳지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는설명하고있다。게다가 어린아이는 딴동물과 달리 오랫동안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하고、이런 어린아이를 거의연년생으로 낳는게 인간의생리다。▼러브조이교수의 이론은 어떻게 보자면 값싼 음담패설같기도 하다。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어린아이들을거느린 인간의 어머니들은 사내들의 보호가 필요했다는게 그의 이론이다。사내들은 먼데 나가 음식을 장만해오고、적의 공격을 막아줘야했다한다。그대신 여성들은「섹스」로 부부관계를 맺어놨다고러브조이교수는 말하고 있다。남녀의 기능의 차이가 시작된 것이다。▼최근의 연구결과로 남자의 뇌는 공간을 파악하고 수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뛰어나고、여자는 언어감각에 뛰어나다는게 밝혀지고있다。먼데 먹을것을 찾아나서던 사내들의 생리때문이라고 러브조이교수는 말한다。그러나 프랑스의 한여자교수님은 약간 색다른 설명을 하고있다。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된 것은 남자의 정액이 어린아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되면서부터 라는 것이다。▼여성해방의 물결이 20세기의 특징이긴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여자가 되고싶어하는 남자가 늘어나고있는 세상이 가도하다。호르몬제의 발달로 성전환수술이 유행하는데서 볼수있는 현상이다。세계적권위자인 카사블랑카의 의사 뷔로는 20년동안 6백여명을 수술했다고 한다。그러나 성전환수술에는 법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성전환 수술을 해서 케네드·율레인에서 카렌·울레가인이 된 한 항공사 조종사가 미국의 이스턴항공사에 4백만달러(27억6천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낸일이있었다。여자가 됐다고 내쫓는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지난8월 소송을 제기한것이다。이런 난센스는 가끔 있는 해프닝이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성전환수술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지난 9월 일본을 방문했던 카터前미국대통령은 자기의 일생이『세사람의 여자에 의해 지배됐다』고 실토했었다。어머니、아내、그리고 딸을 말하는것이다。여권운동의 기수 베티·프리던도 최근 남성에 대한『도전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나섰다。남녀의 협력은 생리적인것、이상의 정신적 산물임을 뜻하는 말이다。수컷없이 암컷만으로 쥐의 생식이 가능하다해도 생존양식 자체에 어떤 변화가 올지 속단할수는 없는일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 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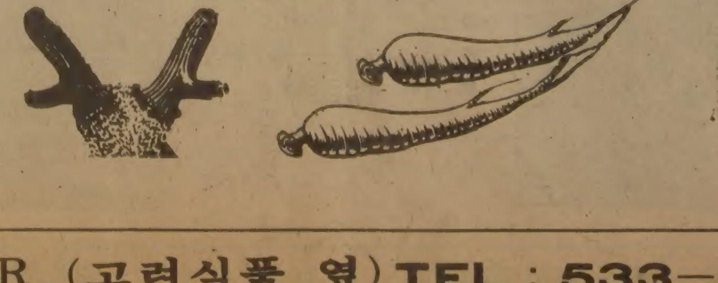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빅세븐선물센타 (구아세아 선물센타)

—GOOD NEWS— 〈기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동안 교민 여러분의·성원속에 날로 성장해온 아세아 선물센타는 금번 위와같이「빅 세븐 선물센타」로 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중국본토"로부터 직수입한「각종 한약재」와 한국의 최고급「인삼」을 교민여러분께 특별대매출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한약〉
중국길림 흑룡강녹용 1냥 $ 59.
섭전대보탕 1첩 $ 8.—
북경로얄제리 100정(2병) $ 20.—
편자황(진품100%) $ 290.—
우황청심환, 호른환, 웅담, 북경산 위장약등 각종약재, 녹용정



〈밍크및 각종털제품 염가매출〉
●각종 물개가죽 핸드백
●불루·폭스, 레드·폭스, 실버·폭스 목도리및 칼라.
●밍크 숄, 밍크자켈
※이외에도 각종 선물용 구비했음.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 대표 김 영 철

勞動罷業 계속때 戒嚴선포

波議會경고 國家존립 위협不容

◇먼데일, 中共서 美미술展示감상
中共을 방문중인 먼데일前美부통령이 19일 北京역사박물관에서 개막된 美國미술전에참석, 진지한 모습으로 전시품을 감상하고있다. 【北京19日AP=聯合】

【바르샤바19日UPI=聯合】폴란드의회는 일부 자유노조의 산발적인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노동불안이 계속될 경우 계엄령이 선포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는 이날 폴란드신문들이 1면기사로 轉載한 對국민메시지를 통해 폴란드정부가 파업금지책을 준비중이며 현사태가 계속되면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10월30일 노동자들에게 파업중식을 호소한바있는 의회는 이날 메시지에서 『자유노조가 의회의 호소를 전혀 유의하지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메시지는 이어 현 긴장사태가 지속되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는 법이 규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수 있다면서 자유노조의 지난16개월간에 걸친 소요사태에 대처하는 보이체흐·야루젤스키 黨제1서기의 마지막 카드중에는 노조의 파업권을 폐기하는 입법조치와 계엄령 선포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파업에 돌입했거나 준비중인 노동자들을 겨냥한 의회의 이 메시지는 지난주 지엘로나·고라와 소스노비에크 광산노동자들의 대규모파업이 종식된이후 일부지역에서 새로운 파업이 진행되고있는가운데 나온것이다.

「政府와 同等」주장後退 經濟문제 監視者役만

自由勞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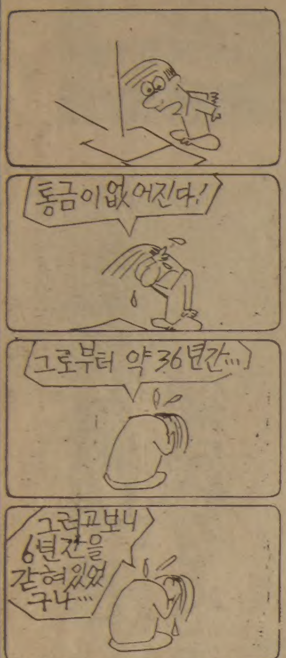
【바르샤바19日AP=聯合】폴란드자유노조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른 폴란드경제를 관리하는데 있어 정부와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에서 1보후퇴, 경제문제에 관한 권위있는감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유노조대변인 마레크·브루네는 정부와 노조의 4개합동협상대표단이 ①국내경제조정및 광범위한 경제개혁 ②당면한 올겨울 월동대책 ③자유노조의 언론매체이용 ④지방분규해결방안등 자유노조의 4개요구사항에대한 협의채비를 갖추고있는 가운데 『자유노조는 정부와의 동등한 제휴를 바라지않고있다』고 말했다.

폴란드정부는 당이 정부와 노조의 동반자관계를 거부함에따라 그 대안으로 「국민단합전선」에의 참여를 제의했었으며 17일의 對자유노조회담에서는 자유노조의 「사회경제협의회」구성제의에관해 협상을 열기로 동의했었다.

두꺼비

안의섭



中共 南阿共에 우라늄

WP紙보도 原電2개 1年稼動分

【워싱턴19日AP·UPI=聯合】미국관리들은 지난주 남아공화국에 농축우라늄을 공급한나라가 중공인것으로 믿고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9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익명을 요구한 美관리들의 말을 인용, 남아공이 1천메가와트급 핵발전소 2개를 미국의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1년간 가동시킬수있는 양의 농축우라늄이 지난주 중개상 역할을한 스위스의 한 회사를 통해 남아공에 공급됐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적불명의 선박들이 약50톤으로 추산되는 농축우라늄을 남아공에 공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초 프랑스의 프라마톰사가 내년 남아공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중공이 공급한것으로 보도된 이 농축우라늄 1차 선적분은 남아공최초의 핵발전소인 쾨베르크 발전소에 공급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싱턴주재 중공대사관대변인은 중공이 남아공과 외교 또는 무역관계를 맺고있지 않으며 남아공에 농축우라늄을 판매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포스트지의 그같은 보도가 「순전한 날조」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워싱턴19日AP=聯合】美국무성은 19일 중공이 농축우라늄을 南아프리카공화국에 직접 공급했다는 뉴스보도를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핵확산금지문제에 관한 고위정책책임자인 제임즈·멀로운 국무성과학담당차관보는 이날 상원核확산금지소위증언에서 국무성이 비록 핵물질공급의 근원에 관해 확실히 알고있지 못함을 시사하면서도 중공이 공급자라는 보도에는 동의할수없다고 말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美, 미사일 西歐배치強行

蘇서 軍縮제의거부면 公式반응 기다려

【워싱턴19日AP·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의 對蘇핵무기 및재래식무기대폭감축제의에 대한 소련언론의 『성급한』거부반응에도불구, 미국은계속해서 이제의에 대한 소련당국의 공식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딘·피셔 美국무성대변인이 19일밝혔다.

한편 美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날 소련이 레이건 대통령의 제의에 관한 협상을 끝내 거부한다면 미국은 오는 83년부터 유럽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당초 계획을 강행하게 될것이라고경고했다.

피셔대변인은 미국의 핵미사일 상호감축제의에대한 소련관영 타스통신의 부정적반응은 『성급하고 부정확한것』이라고 논평하고 그러나 美행정부는 이번 제의에 대한 소련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을 계속 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

【워싱턴19日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의 새로운 對蘇군축제의는 그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력증강노력의 포기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이 19일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CBS-TV의 「모닝」프로에출연, 레이건 대통령이 세계를 위해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수 있는 군축협상을 개시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나 이같은 협상을 약자의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核배치 提議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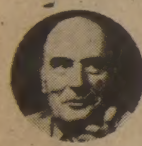
스즈끼, 非核정책固守 재다짐

【東京19日UPI=聯合】스즈끼·젠꼬(鈴木善幸)日本수상은 18일 일본에 크루즈미사일이나 여타戰域核무기를 배치하려는 여하한 미국의 제의도 거부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중의원회의에 출석, 한 공산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답변에서 『미국이 그같은 제안을해올경우 일본은 무조건 「노」라고 답변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정부가 일본영토내는물론 심지어 駐日미군기지에도 핵무기의 배치를 금하는 일본의 非核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테랑 대통령

미테랑 重病說

파리近郊 軍병원서진단

【파리19日AP=聯合】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중병을 앓고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19일 주요 일간인 프랑스·스와르紙와 파리·마치지는 이달초 미테랑 대통령이 파리교외의 한 군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을 집중보도 했다.

사회주의 정책에 반대해온 보수계의 프랑스·스와르는 미테랑 대통령이 발·드·그라스 군병원에서 가명을 사용, 정기건강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병원장의 말을 인용, 미테랑 대통령의 피부가 황색으로 변했으며 걷는데 장애가 있는것 같다고 전하는한편 대통령이 지난7년간 유명한 암전문가로부터 치료를받아 왔다는 소문을 덧붙였다.

◇癌퇴치協會서 禁煙촉구 캠페인
美테사스주의 암퇴치협회 청년회원들이 19일 禁煙을 촉구하는 한행사에서 거대한 담배모양의 종이통을 말아 모닥불을 피우고있다. 【텍사스州AP=聯合】

레이건 參謀가 편說

【워싱턴19日=聯合】레이건美대통령이 그의 몇몇 고위보좌관들을 둘러싼 논란과 이에대한 美맹방들의 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 조만간 그의참모진을 개편하고 참모진운영방식을 변경시킬지 모른다는 풍문이 워싱턴정가에 끈덕지게 나돌고 있다.

정치관측통들은 19일 레이건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가 현재로서는 레이건 대통령의 주요자산이나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그의 행정부를 지탱케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참모진개편가능성을 시사했다.

日民社·新自由의원 내달에 韓國을방문

【東京20日共同=聯合】일본의 야당 新自由클럽과 民社黨소속 의원 수명이 오는12월2일과 3일 한국을 방문, 全斗煥대통령과 회담할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民社黨사절단은 오는12월 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新自由클럽은 3인대표단을 하루후인 3일 韓國에 파견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

社說

通禁해제의 밝은展望 —自由開放社會다운 自信度 높이자

무려 36년간을 지리하게 끌어온 宿滯가 一朝에 속시원히 풀리는것같은 느낌이다. 세계를 두루봐도 몇개 없는 夜間通行禁止가 내년 조속한 시일내에 일부接敵地域및해안취약지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全地域에서 전면 해제되리라고 한다.

19일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 초청으로 자리를 같이한 民正·民韓·국민등 3黨과 議政同友會 重鎭들은 夜間通行禁止해제에 관한 對政府건의안을 이번 定期國會회기내에 超黨的으로 처리키로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民正黨의 李鍾贊총무에의하면 通禁해제방침은 이미政府와의 원칙적협의를 마친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회의각 政派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對政府건의안은 이를 異議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民主政治의 상식이며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한 관례로 돼왔던 것이다.

與黨과 政府간에 협의된 通禁해제의 이유에 관해서는 ①88년 올림픽 개최에 따라 언젠가는 通禁이 해제돼야 하는데다가 ②그동안 忠北과 濟州및 일부 觀光地域에서 通禁을 해제한 결과 安保나 治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③通禁해제로 觀光 또는 産業활동을 촉진할수 있다는 판단이 부각된 것이라고 한다.

구시대의 宿弊와 不便 청산하는길

그리고 通禁해제를 위해서는 구태여 法改正이나 부수立法조치등이 필요없게시리 되어있다. 단지 국회의건의안을 國務會議에서 의결하고 내무장관이 해당지역의 通禁을 해제하면 족하다.

애당초 그토록 지리했던 通禁제도는 해방되던 해인 45년9월 美軍政포고 제1호에 근거하여 서울과 仁川지역을 대상으로 限地的, 限時的으로실시됐던 것이다. 그후 輕犯罪處罰法제1조43호에 법적근거를두고 내무장관의 권한으로 계속실시되어 왔으나 이는 憲法이 보장한 국민의 基本權, 특히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라는데서 違憲논쟁이 간헐적으로 제기될수 밖에 없었다.

法的인 측면을 차치하고라도 政治가 다루어야할 현실적 문제로서 우리社會에 心理的 重壓感을 드리우게하는 동안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끼친 불편이 이만저만아니었다. 구시대의 구정권하에서는 바로그 通禁시간이 특히 선거기간중 엉뚱한 의혹을 빚게한바 없지않았던것도 사실이다.

産業활동에 본의아닌 空白기간을 조성했으며 庶民의 生計영위와 교통에 만성적 지장을 초래했었다. 通禁에 쫓겨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한 각종사고의 빈발과 인명손상이 적지않은데다가, 그 제도로 말미암은 위반자 「구류」사태와 이 중압감에 편승한 몰지각배의 도량등이 그칠 사이없었다.

나아가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흐리게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은 따랐다. 그리하여 이 通禁제도는 답답하고 고질적인「發展저해요인」이며 庶民생활의 간단찮은 지장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터이다.

이번에 政府와 與黨이 그通禁의 해제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것은 새시대의 改革意志에따라 구폐를 일소하려는 과감한 실천의 일환이라고 높이평가되는 바이다. 뿐더러 安保와 治安, 그리고 社會開放에 걸친 自信感의 표명임을 관측케한다. 앞서 국민당이 通禁해제 건의안을 국회에 제기한바 있었는데 이에대해 與黨이 적극적 검토를 아끼지않았음이 증명되었다는 사실도 政治雰圍氣의 호전에 이바지할 고무적인 자세임에 틀림없다고본다.

副作用 극소화로 自治能力 보여야

通禁해제의 超黨的 추진에 관한 각계·시민의 반응은 대체로 이를환영하며 당연시하는 밝은 표정임을 확인케한다. 「후련한 해방감」을 내다보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유개방사회임을 온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데 견해일치를 보인 셈이다. 經濟人들은 物動量의 신속한 소화와 교통체증완화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에 대한 좋은 인상에 기대를걸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의 경제활동에 도움된다는 것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에의 기여역시 흐뭇한 전망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기야 그반면에 청소년들이 밤늦도록 나다니게 된다든지 직장인의 귀가가 늦어지리라는등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다고 들린다. 하나 그러한 부류의 우려는 가정내부 사정으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겠다.

오늘의 우리겨레는 세계의 대세도 아랑곳없는 「隱者의 나라」에서 고루하거나 옹졸한 달팽이식 생활양식에 집착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安保와 治安의 고려에 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향유하되 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북괴의 침략한 책동에 대비하기위한 대공경각심을 종전이상으로 강화해야 할것이다.

또 우리는 治安유지와 관련, 성숙된 문화국민다운 질서의식을 진일보한 양한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따위 탈선행위의 유발은 민주국민의 최대 수치로서 자제되어마땅하다. 自律과 自制의 실천으로 우리 겨레가 自由를 누릴수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세계와 후세 앞에 증명하자는 것이다.

당국의 治安유지 노력에 대한 이해있는 협조태세도 현시점에서 진지하게 성찰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夜間通禁해제는 초당적, 국민적 합의에 뒷받침되면서 不退轉의 방침으로 우리 앞에 부각되는데 이르렀다. 물뜨지 않는 그 단계적확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일시적 부작용등을 억측하는 위축과 주저만을 맴돌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夜間通禁해제의추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딱딱했던 사회분위기를 부드럽고 명랑하게 만드는 국민和合의 좋은 계기로 될것을 염원하여 마지않는다. 이와 함께 우리는 安保와 治安에 걸친 補完策에 서국민각계의 자각적 협조태세가 차분하고도 늠름하게 실증되어야 하리라는 當爲性을 附言하는 바이다.

安益泰씨 夫人·딸 KBS초청 來韓

「애국가」의 작곡자 故安益泰선생의 미망인 롤리타여사와 장녀 엘레나양이 KBS의 초청으로 26일한국에온다. 安益泰선생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 『코리아환상곡』의 방영(12월1일)을 기해 초청된것인데 엘레나양은 한국이 처음이다.

MBC창사20周年 대학 가곡祭 개막

문화방송 창사20주년 기념 제1회대학가곡제가 21일하오 6시숭의음악당에서 열린다. 대학생들의 창작가곡 1백30여곡중 1·2차예선을 거친 15곡이 본선대회에서 겨루게되는데 최우수상(1곡)에 50만원, 금상(1곡)30만원, 은상(1곡) 20만원, 동상(2곡) 각10만원, 장려상(3곡)에 각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英셀럽 싱글차트서 언더프레셔 톱올라

★…英國에서 히트송 메이커로 불리는 퀸&데이비드·보위의 노래가 이번주 영국 베스트 셀링 싱글 차트톱에 올랐다. 톱에 오른 노래는 「Under Pressure」로 지난주 17위에 랭크되어 있던 곡.

通禁없는 두地域의 오늘

清州·忠州·丹陽등 商工지역 크게 活性化

忠北

「야간통금해제 16년」의 경험을 지닌 충북지방의 경우 邑·面소재지 이하의 농촌지역에서는 통금이 실시중일때나 해제이후나 주민생활에 큰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도청소재지인 清州나 상공도시인 忠州·堤川·丹陽 지방은 실시전후가 판이한양상을 나타냈다.

60여만명의 부지에 50여개의 중소공장이 들어선 큰규모의 공업단지가 있는 清州(종업원 약4만여명)와 비료공장이 있는 忠州市, 4개 대단위 시멘트공장지대인 堤川·丹陽은 야간해제와동시에 각공장들이 근무교대를 1일 2개조이던것을 3~4개조로 확대편성, 종업원들의 근무시간단축, 출퇴근활성화를 가져올수 있었다.

또 도시지역의 각급접객업소도 철야영업장으로 탈바꿈했고, 영업용택시들이 새벽3시까지 운행연장, 주민들의 불편없는 밤생활을 보장했다.

별다른 治安문제없고 觀光客유치 도움

濟州

濟州道는 지난64년 1월18일부터 통금이 해제된이래 17년간 범죄를 비롯한 치안상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해졌으며 시민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여유를 갖게 됐다.

처음 통금이 해제될때 경찰은 야간범죄가 늘어날 것을 크게 염려했으나 통금해제직후 시민들은 오랜습성에 비교적 순조롭게이루어졌다.

이제 濟州道 사람들은 통금이란 말이 생소할 정도로 통금없는 생활에 젖어있고, 젊은 탓인지 서울러귀가해12시이후 시가에는 별로 인적이 눈에띄지 않는등 통금에서 통금해제로의 이행과정이 서울등에 여행을 할경우 통금의 압박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는다.

최근 濟州市의 번화가에는 야간업을하는 업소가 많으나 밤12시 이후의거리는 인적이 거의 없고 관광객을 태우려는 택시들만이 호텔, 유흥업소주변에 몰려있는것이 서울등 통금지역과 다른 풍경이다.

通禁日誌

◇해방전
李太祖4년 현재의 和信앞 네거리에 2층 종루를 설치, 「도둑방지와 亂事방지」에 필요하다며 하오10시부터 뒷날 상오4시까지 종을 쳐 통행을금지한 것이 시초.

◇해방후
▲1945·9·8=「일정하에서 해방된 한국국민의 인권과 권리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공포된 맥아더장군의 군정포고 제1호에 의해 서울과 仁川에 하오8시부터 상오 5시까지 통금실시.
▲1950·7·8=6·25사변발발과 함께 통금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실시.
▲1955·4·1=경범죄처벌법제정으로 입법화되어 통금시간을 자정부터 상오4시로 단축실시, 오늘에 이름.
▲1958·11·2=통금시간을 상오1시에서 상오 4시까지 1시간 더 단축.
▲1959·7·6=「간첩과범죄자를 미리 막자」는 의도하에 자정부터 상오 4시까지 1시간 다시 연장실시.
▲1961·5·17=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제15호에 의해 하오11시~상오5시로 연장실시.
▲1961·5·27=자정부터 상오4시까지 다시 1시간 단축.
▲1964·1·18=전국적해제를 위한 모델로 제주도전역에 통금해제.
▲1964·2·20=巨濟·鬱陵·南海등 세섬 통금해제.
▲1965·3·1=충북지방 통금해제.
▲1966·4·27=트럭등 화물자동차 통금해제.
▲1966·5·5=관광지및 경기·충남의 도서지방지역을 제외한 도서지방에 통금해제.
▲1979·2·26=공화당 통금 1시간 단축건의.
▲1979·10·27=10·26사태로 전국에 통금을 하오10시~상오4시로 연장실시.
▲1979·11·2=서울등 13개도시를 제외한 지역 자정~상오 4시로 환원.
▲1979·11·8=서울등 7개도시에만 하오11시~상오4시로 다시 한시간연장실시.
▲1979·11·26=서울등 7개도시도 종래의 자정에서 상오 4시로 환원.
▲1981·5·8=서울등 6대도시에 빈택시통금시간을 0시30분까지로 30분 단축.

政局往來

◆내가발표했다면誤解없었을텐데

權正達民正黨사무총장은 20일『通禁해제실시시기를 1월1일부터라고 한것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전날밤與野간부회의후에있은李鍾贊총무의 발표내용에서 한발후퇴.

그는『어젯밤 간부회의를 내가 주재한만큼 발표도 내가 했더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시간에 쫓겨 3黨총무에게 발표를 맡긴것이 잘못됐다』면서『정부측과 제한된협의를했기때문에 실시시기는 다시협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尹碩淳사무차장도『어젯밤 회의에서 通禁해제의 실시시기는 거론된바 없다』면서『국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이번 통금해제건의의 촉매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新聞에 씁쓸한 高총무 기사났더라

19일저녁 3黨3役회의에서 나온 通禁해제를 둘러싼 神經戰으로 20일하오 열린 3黨총무회담은 회담벽두 李東鎭국민당총무가『通禁해제건의안 내용중「내년 1월1일」은「조속한 시일내」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滿面喜色으로 말을 하자 高총무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李鍾贊民正黨총무는『신문에 씁쓸한 高총무라는 기사가 났더라』면서 한바탕 웃었다.

1시간정도 통금해제건의안, 올림픽特委구성등을 논의한뒤 稅法문제등을 손대기시작했으나 異見幅이 너무커 稅法小委時限만연장하고 종결.

회담이 끝난뒤 李民正총무가『교육세는 각당이 다시 黨論을 종합하고 稅法小委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高民韓총무는『우리는 反對論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반대했다』고 설명.

李총무가 다시『재산세부가만 하지않으면 民韓黨도 찬성하는것이아니냐』고 하자 高총무는『우리는 一絲不亂한데 民正黨안에 바람잡이가 있는줄 안다』고 反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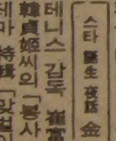
"通禁해제 1월1일은 表現의 잘못"

◆국민당은 싱글벙글·民韓은衝擊

與野가 通禁해제안을 이번국회 會期중에 처리키로한뒤 이번 건의안을 제출한 국민당은『適時打를 날렸다』고 흐뭇한 표정인데 반해 民韓黨은 祝祭분위기에 충격을 받은 듯 이선물을 빼앗긴 표정에서 깨어나지못한채 시무룩한 표정.

이충격은 19일저녁 회의직전까지도 民正黨의 보따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데서 더욱 加重되고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辛相佑사무총장, 高在淸원내총무, 韓英洙정책위의장은『통금해제는 뜻밖의 제였다』고 異口同聲.

辛총장은『李鍾贊民正黨총무로부터 연락을 받고 회담장에 나갔는데 우리측 협상窓口인 高총무로부터는 아무런 말을 듣지못했다』고 떠넘겼고 高총무는『稅法과 예산문제가 나올줄 알았는데 民正黨이 이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1월22일자
주간女性
슈바이처처럼 사는게 나의 소원예요
淪落女 선도해온 여의사 朱惠蘭씨의 눈물 美談
「사랑의 전화」의 고민事例集
여군 1番 故金賢淑씨 생애
패션 디자이너의 異色조사
스타 醫生 夜話 金芝美편
테니스 감독 崔富吉씨 집념
韓貞姬씨의 「봉사 35년애환」
테마 特輯 「맞벌이 夫婦」편
崔茂龍 「再婚한다면 「보통 女子」와 하고싶다」
시해 당한지 86년만에 비로소 풀린 閔妃의 恨
〈탤런트 元美京〉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MR. CHOIS RESTAURANT
주중: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무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필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95

내가 共和黨당의장이자 63년 5代 대통령선거사무장을 맡아 朴正熙후보의「野戰사령관」이 됐을 때 야당의 대통령후보는 나의 친조카인 海葦 尹潽善이었다。그때 세상에선 叔姪간에 싸우고있다고했다。여러가지 雜音과 모략도있었다。사실 이때문에 무척 번민을했다。그래서 대통령선거사무장을 맡아 달라고 했을때 나는 한주일간을 번민에 싸였다。海葦에 대한 입장때문이었다。나라를 위한 善意의 투쟁이라 하지만 가족적으로 그보다 괴로운 일이 없었다。

63년10월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1주일뒤 당시「共和黨2人者」인 金鍾泌씨가 8개월만의 外遊에서 돌아왔기에 나는 그를 위해 당의장 자리에서 자진해 물러났다。朴正熙 최고회의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나의일무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해 11월26일 6대국회의원總選때 나는 共和黨전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制憲·2·3代의원을지난후 5년만에 다시 院內에 복귀한것이다。

그런지 얼마안된 어느날 朴正熙대통령이「組閣本部」로 나를불러『서울시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나는 행정을 모른다며 거듭 사양을 했다。나의생각은 국회활동에 있었다。

서울市長 시절

그러자 朴대통령은『東山선생님 서울시장은 국무총리와 같습니다。런던시장과같은 역할을 해주시지요』라고 말했다。그말은 대외적으로 외교도하고 나라를 소개하는듯 화려한얼굴」의 시장이 돼달란뜻이었다。더이상固辭하다간 내가딴 욕심을 품고있는것으로 오해가생길것같아 하는수없이수락했다。뜻밖의 서울시장이된것은 建國初관심밖의 내무장관이 된 거와 흡사했다。이바람에 나는국회의원은 해보지도 못하고 通算5選의 기록만 남겼다。

주로 外賓접대맡고 市長室 開放노력
2年半동안 庶民들통해 많은것 배워

◇豫期치않던 서울市長에 재임하는 동안 나는市政의 숱한 문젯점과 가난한庶民들의 實相을목격하는 귀중한 체험을 했다。사진은 당시 市政有功시민들을 표창하는 筆者。

13代 서울시장이 된 나는 2년반가까운 재임기간중 외국손님은 직접 맡고 實務는 모두 부시장、局·課長들에게 일임하는 시책을썼다。그당시 다녀간 외국인사들중엔 러스크 美국무장관、록펠러3世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나는 그들에게 제3공화국의 입장、방향등을애써 알렸다。

시장재임중 서울市內의 어둡고 감추어진 곳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내딴엔 애를 쓰기도 했다。그러다 보니 웃지못할 일도 있었다。

하루는 밤중에 全在德 부시장등 간부및 관할경찰서장과 함께 鍾路3街 紅燈街(宗廟앞)에 暗行시찰을 나갔다。그런데 이건 시찰이 아니었다。가자마자 밤거리여인 20여명이 달라붙어 포위하더니 저마다 방으로 끌고들어갔다。부시장은 부시장대로、서장은 서장대로 납치됐다。속사정을 알아보고 싶어 방까지 들어가 유심히 살폈다。TV같은게 있고 번쩍거리는 장롱、이부자리가 있고 방안은 멀쩡했으나 여자들의 표정은 웃음과 비애가 한데 엇갈리는 묘한 현상들이었다。

느닷없이 시장등이 없어지자 밖에서 직원들이 야단이 났다。나는 밤거리여인들을 불러놓고는 밝은 삶을 살라고 충고했으며 나중엔 보건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타이르고 그곳을 나왔다。

鍾路3街일대에「赤線地帶」를 설정토록 한것은 이 실상을 보고난뒤였다。

어느날은 變態영업을 알아보러 瑞麟洞근처의 카바레엘 들어갔는데 언제 쫓아왔는지 신문기자가 플래시를 마구 터뜨리는 통에 도망을 치는등 카바레안에서 아우성이 벌어졌다。또 有夫女들이 몰래 놀아난다는 牛耳洞산골짜기도 가보고 貞陵골짜기도 가봤다。貞陵골짜기에선 완전히 벌거벗은 여자가 술먹고 추태를 부리는것을 경찰관이 단속했더니 그여인 曰『민주주의국가에서 내맘대로 하는데 왜 야단이냐』며 대들었다。기겁할 노릇이었다。

나는 시장실을 늘 개방해 직원들의 直言을 수시로 듣고 찾아오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려고 애썼다。

서울시행정이란 무척 힘들다는것을 그때 알았다。내부에 아름답지 못한 일도 적지않았다。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뻔한 진리를 서울시행정에서 절실히 깨닫기도 했다。

서울시장을 그만둔뒤 朴대통령이 외국대사로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해왔으나 난 사양을 하고 한동안 쉬었다。

내가 휴양하고 있던 시절、하루는 李厚洛청와대 비서실장한테서 전화가 와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共和黨당의장을 다시 맡아달라고 했다。나대로의 소신과 구상이 있어 그청을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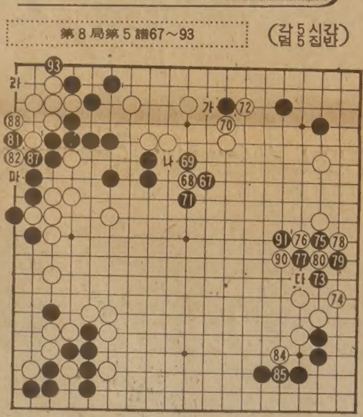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모로 是是非非가 있겠으나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부작용도 있었고 長短이 있었을줄 믿는다。나는 당시의 국가中興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다。鴉片과 가난을 털고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물론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부작용과 문젯점이 나오기도했지만… 아무튼 나는 是是非非는 가리되 쌓은 功을 부정하지말라고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다。

오랜만에 政界복귀를 했던 나로서는 생각지도않은 서울시장在任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수도행정의 숱한 문젯점과 어려움을 직접겪었고 또 貧富、즉 市中과는 달리 변두리 庶民들의 생활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다는것을 목격하는 소중한 체험을했다。

제13기 名人戦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第5譜67~93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 河燦錫〈1敗〉
黑(7段) 徐奉洙〈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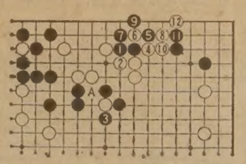
전보에서 지적했듯이 黑67에대한 白68은 黑69를종용하고 70에치받자는 秘藏의 강수인데 여기서 徐7단은 8분이나 고심끝에 중앙쪽을 黑71로 단수쳤다。

71로 白72자리에 끊어내는것은 너무 심겁고 또 반대쪽인「가」자리에 치받는 강수는 모험이다。즉、참고도의 黑1은 白2가 두어지면 白「A」(실전보의「나」)마저 당할수 없으므로 黑3을두어야하는데 그제는 白4이하12까지되어 귀쪽이아니면 1증의黑이 크게다친다。따라서 黑71은 正手이지만 대신 白72를 당하고보니 黑은 거듭되는 작전실패로 열세가 한층 두드러지고 말았다。

16분을 숙고한끝에 내리찢은 우변의 黑73은 열세를 만회하려는 비장한 육탄전이다。이리하여 뜻하지않게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黑81의 패쓴은 좋았다。이수로 그냥 87자리를 막으면 白은 패를 들지 않고 白「다」로 따내버린다。그런데 黑「라」에는 白82로 젖히고 黑「마」때 白88이면 이곳에 또 패가나기 때문이다。즉 말해서우변패는 지고 이곳에 패를 옮긴뒤이어서 黑이 억울한 것이다。결국 黑93에 패승을했는데 여기서 河7단은 손길을 멈추었다。자、돌을 던진것이냐、아니면 白「다」로 패를 아주 해소한 것이냐。

83、86、89、92…패。【一凡】

아리송한 패의 應酬



바둑소식

曺薰鉉8단 2연승

◉…曺薰鉉 8단이 11월초부터 열리고있는 甲組승단대회에서 2연승으로 9단의승단가도를향해 진군하고있다。曺8단은 白을 들고 金在九7단、金熙中 6단을 물리쳐 앞으로남은 3·4·5·6국등 4국을 이길 경우 우리棋界史上 초유의9단에 오르게된다。그런데 가장 큰고비는 6국째의 徐奉洙7단과의 대결이 될듯。덤없이 白으로 두어야 하기때문에 9단승단의 마지막 관문이 될것으로 보인다。

韓·日 頂上級들 한판勝負
12월초 日本서 趙治勳·徐奉洙戰등

◇7단 徐奉洙씨

◇6단 徐能旭씨

◉…徐奉洙7단과 徐能旭 6단이 오는 12월초 일본에서 趙治勳名人과 다께미야9단(武宮正樹)과 각기 한판 승부를 벌인다。

한국과 일본의 이번 정상급기사대국은 KBS TV가 마련한 것으로서 두기사는 12월3일 渡日한다。

대국은 徐奉洙7단대 趙治勳名人、徐能旭6단대 다께미야 9단사이에 이루어진다。

대전료는 1국1인당 日貨 20만엔。

이속기대국은 내년正初連休에 KBS TV를 통해 방영될예정。

대학연맹 成大1位

◉…지난주 한국 기원에서 열린 제1회 秋季대학 바둑 연맹전에서 成均館大가 1위、延世大가 2위、西江大가 3위를 차지했다。우승에는 김영순(圓光大2년)、2위 고현욱(江原大3년)、3위는 발종학양(江原大1년)이 각각 차지했다。

教育목표「건강한 사람」으로

문교부 初·中·高 教育과정 개정안 마련

教科書내용 아주쉽게 고쳐
國民정신교육 전科目에반영

◇公聽會서 열띤 토론 우리교육의 목표가될「교육과정 개정안에 관한 종합 세미나」가 20일 상·하오에걸쳐 世宗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내년 國校교과서 일부바꿔
教鍊은 高1·2학년 서만

우리나라의 교육목표가「지식있는 사람」에서「건강한 사람」으로 크게바뀐다。지난 3년간의 작업끝에 20일 문교부가 확정、공청회에 붙인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은 우리교육이 목표로 하고있는 인간상을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있는 사람 ▲도덕적인사람 ▲주체적인 사람등 5가지로 구체화하고 일반목표의 강조사항에서도「건강한 신체」를 제1항 첫머리로 올려놓고 있다。이같은 새교육과정의 이상에따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유치원·초·중·고교의 전교과내용은 지금보다 쉬워지고 수업시간및 학습량도 줄어들게된다。

★관련기사10면

이날 문교부는 교육과정개정안을 발표하면서『현재의 우리교육은 지식교육에편중、전인적인 인간교육이 결여돼있다』고 말하고『건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요건이며 국력의 원천이기때문에 이를교육목표의전면에 내세우게된것』이라고그배경을 밝혔다。

洪雄善문교부 교육개발원 원장은『새교육과정안이 지금초·중·고교생이 참여할 2천년대의 우리사회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그시대에필요한인간교육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설명하고『지난날 교육은 학습내용의과다、너무 어려운내용、기초교육의소홀로 많은 문젯점이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은 사회적、정치적요구를 외면할수는 없는것이며 이같은 외적요구를 교육적으로 해석、교육내용에 통합시키는일이 이번교육과정 개정작업의 한과제였다고 말했다。

이번교육과정 개정안은 그 체제상 현행교육과정에는 없는 미래사회의 성격규정과 함께 교육으로 기대하는 인간상을 처음으로 규정하고있는데「심미적인 사람」은 정신생활의정서를、「능력있는사람」은 산업사회에 대비한 지식과기술을、「도덕적인사람」은 준법정신과책임감을、「주체적인사람」은 애국애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각각 강조하고있다。

교육과정개정안은 이날 세미나형식의 공청회를거쳐 오는 12월 정식공고하게 된다。

문교부는 이번 교육과정개편에따라 교과서도 전면개편하는데 국교 1·2·3학년의 전교과와 4·5·6학년의 도덕 사회과는 82학년부터、나머지 4·5·6학년용은 83년부터、중고교용은 84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각급학교의 수업시간수가 1주일에 1~3시간씩 줄어들고 3년간 매주 2시간씩 들어있던 고교생의 교련이 2·3학년에서는 1주1시간씩하거나 1·2학년때에 한해 1시간씩 받게 해 3학년때는 교련을 받지않도록 했다。

또 국민정신교육과 전인교육·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해 도덕과등에 국한된 정신교육내용을 전교과목에 함축시키고 현재 독립교과로 돼있는 고교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사회과로 합치는등 학문체계보다 문제중심의 통합교육을 시도하고있다。

제3案 압도적支持
大入학력고사 개선案 공청회열려

대학입학 학력고사 교과목및 배점에 대한 문교부의 4개시안중에서 교사·교수·학부모등 관계자들은「현행 14개고사과목을 18개과목으로 늘리되 이를 84년부터 8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하는 제3안을 압도적으로지지했다。

20일하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학담당교사·고교교장·학부모·대학교수·문교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4개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수험생들의 심리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3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참가자 10명중 7명이 제3안에 찬성했으며 나머지3명이 제2안을 지지했다。현행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는 제1안과 과목수를줄이는 제4안에 대해서는 단1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제3안이 채택될경우 83년도 현행과 같고 84년도에 인문계과학1과목추가되고 85학년도에 인문계에 국어Ⅱ、한문Ⅱ、자연계는 수학Ⅱ가 추가되고 86학년도에가서 최종적으로 제2외국어과목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스케줄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水原 잠업試驗場 숙직退勤後
우물속에 보일러공 變屍體
왼팔·다리묶인채 失踪 3일만에

【水原=聯】19일하오1시께 경기도 水原市西屯洞 蠶業시험장내 우물속에 시험장보일러기사 金榮旭씨(46·경기도華城郡半月面本五里514)가 실종3일만에 왼쪽팔과왼쪽 허벅다리가 나일론끈으로 묶인채 빠져숨져있는것을 청소부 盧璨基씨(50)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盧씨에 따르면 이날 실종된 金씨를 찾기위해 동료직원들과 함께 시험장일대를 샅샅이 뒤지던중 양수펌프장 콘크리트 건물자물쇠가 열려있어 이상히 여기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항상 닫혀있던 철제우물뚜껑이 열려져있고 우물물위에 흰운동화 한짝이 떠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오5시30분부터 현장에 출동、깊이14m의 우물속에서 왼쪽팔과 왼쪽 허벅다리가 나일론끈으로 바짝 묶여져 있는 金씨의 사체를 인양했다。

金씨는 지난16일밤 永澤씨(42·연구사)와 함께 숙직을하고 17일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18·19일 이틀동안 출근을 하지않아 관리과장 金榮洙씨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직원을 시켜 金씨집에 보내 알아보니 金씨가 숙직을 한후 집에 돌아오지않았다고 해 직원들이 시험장일대를 뒤졌다는것이다。

이날 경찰에서 함께 숙직을했던 金씨는 17일상오8시께 복도에서 金씨를 본후 자신은 9시께 퇴근을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 집중조사
光州 여대생被殺

【光州=聯】光州S전문대 金 姬양(20)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9일 金양사체를 부검、위액등 가검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피살시간을 시체발견 10여일전으로 밝혀냈을뿐 사인등 수사에 실마리가 될만한 단서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채 위액과 혈흔등 상처부위의가검물을 채취、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金양이 실종당일 시내 M다방에서 만났다는 20대청년이 이사건의 실마리를 쥐고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는한편 20여명의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있다。

銀쟁반·銀貨 도引揚
三陟앞바다 러시아軍艦서

【三陟=聯】강원도三陟郡遠德邑下月川里앞 해상에서 침몰한 러시아군함 브이스·스리호3백50톤의 유품을 인양하고 있는 해저보물발굴작업반은 지난달 말까지 훈장등 1백여점의 각종 유품을 건져낸데 이어 최근 3회에 걸쳐 은쟁반1개、은화3개、은제 차술잔1개、훈장1개등을 또다시 인양했다。

침몰선박의 기관실부근에서 인양된 은쟁반은 직경15㎝가량이며 은화3개중 1개에는 5프랑이라고 주조돼있었으며 크기는 우리나라 1천원짜리 정도로두께는 더 두터운 편이며 나머지 은화3개에 주조된 글자는 심하게 마모돼 알아볼수 없는 정도이다。

차술잔의 손잡이는 용모양을 하고 있는데 밑부분의 뒷면은 흰색이고 앞면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영문자로 NAKASAKI라고 써어있었다。

成大生 抗訴기각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吳相杰부장판사)는 20일 成大생 尹益洙(21·철학과4년)、李炫培(23·사학과4년)、姜錫信피고인(23·〃)등 3명에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원심대로 징역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시위延大生 3명에 最高 징역3년선고
抗訴審서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盧承斗부장판사)는 20일 지난5월6일 延世大축제 중에 일어난 시위사건관련、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원식(24·토목과2년)、배정환(23·국문과4년)、김상근(23·기계과4년)피고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을각각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延世大축제기간중인 지난5월6일 낮12시30분께 교내학생회관앞에서「81延世大반파쇼구국투쟁선언」이란 유인물을 5백여학생들에게 배포하며 시위를 주동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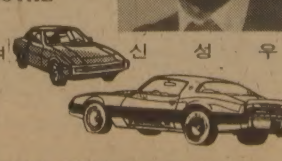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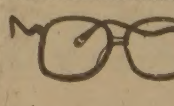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½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½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블론디 딘·영作

"여보, 오늘저녁 포커 해도되지?" "그럼요, 당신이딴돈절반을 제가갖는다면 만예요" "그래, 잃으면 어떡하지?" "당신은 감히 못잃을 거예요!"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싱가포르競合
亞洲靑少年축구 東部예선大會 유치싸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오는83년도에 개최될 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東部지역 예선대회(82년개최)를 놓고 유치경합을 벌이고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0일 대한축구협회에 알려온바에 따르면 東部지역예선대회 유치신청국은 한국과 싱가포르로 압축됐고 이대회 참가희망국은 한국·中共·日本·싱가포르·부르네이·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필리핀·泰國등 10개국이다。

北韓은 참가신청을 내지않아 불참할것으로 보인다。東部지역 예선대회개최지는 내년3월 泰國에서 열릴 예정인 AFC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엘조그 IOC위원 施設점검
프랑스의 모리스·엘조그 IOC위원(사진右)과 뉴질랜드의 랜스·크로스 IOC위원이 20일 曺相鎬대한체육회장겸 KOC위원장을 방문, 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이들은 국내경기시설을 시찰하고 올림픽준비상태를 점검했다。

長身巨砲 確保해야 李圭昭씨가본 排球

한국 남녀배구가 세계정상권에 머물기위해선는 뛰어난 신장과 체력을가진 새로운장신거포를 발굴,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통해 강도높은 공격력을가진 선수들을길러내야만 한다고 멕시코 남자배구 대표팀감독 李圭昭씨는 20일 역설했다。

日本서 열린 월드컵여자배구대회를 참관한후 일시귀국하여 서울에 머물고있는 李감독은 현재의韓國남녀대표팀은 이미한계점에 달해시급히 장신유망주를 발굴, 집중훈련을통해 파괴력 높은 선수들로 대체하지않는한 그동안공들여 쌓아놓은 세계강호의위치를 영영 잃게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具本七·宋連植 銅
印度국제招請육상、4百·百10m서

印度 국제초청육상대회(8~15일, 하이샤)에 출전한 韓國의 具本七(産業基地)은 4백m에서 48초9를 기록, 銅메달을 차지했고 1백10m허들에서 宋連植(成大)도 14초6으로 3위에 입상했다고 선수단이 20일 육상연맹에 알려왔다。

이번대회에는 韓國·日本·西獨·소련·印度등 5개국이 참가했다。

日本, 말聯꺾고 3位 亞洲 남자농구대회

【캘커타19日AP=聯】日本은 19일 캘커타의 네타지체육관에서 벌어진 제11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 결승리그 5일째 경기에서 말레이지아를 87—56으로 꺾고 3승2패를기록, 3위에그쳤다。

◇결승리그 5일전적
日本 87 (44—33, 43—23) 56 말레이지아
(3승2패) (5패)

새마을 蹴球연합회 마카오 親善방문

【홍콩=聯】한국의 새마을축구연합회 마카오 친선방문 대표단(단장 朴南龍) 52명이 지난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마카오를방문, 마카오축구팀「蘇野체육회」소속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등 마카오 탄생이래 최대의 한국붐을 일으켰다。

현재 마카오에는 포니가25대정도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금년초까지만해도 한국인들의 발길을 꺼려한 마카오에 금년상반기부터 태권도、홍콩 한국인 축구팀、제1회 마카오 산업박람회 참가와 思義팀등의 활발한 방문으로 지난6개월만에 한국과 마카오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88年 서울올림픽때 테니스採擇을 건의 샤트리에會長

필립·샤트리에국제테니스연맹회장(프랑스)은 오는 88년 서울올림픽에 테니스를 경기종목으로 채택해줄것을 19일 曺相鎬대한체육회장에게 건의했다。

내한중인 필립·샤트리에회장은 이날 하오 체육회로 曺회장을 방문, 이같이 건의하는한편 국제테니스경기및 韓國테니스의 발전책동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는 국제테니스연맹의 데이비드·그레이사무총장및 하인즈·그딥집행위원도 참석했다。

蘇·日등緖戰장식 월드컵男子排球

【福岡(日本)19日聯=聯】제3회 월드컵남자배구선수권대회가 19일 日本규우슈(九州) 후쿠오까(福岡)에서 79년도 패자인 蘇聯을 비롯한 8개국이 참가한가운데 개막, 첫날경기에서 蘇聯과 日本·쿠바·폴란드가 각기 브라질·이탈리아·中共·튀니지를 꺾고 1승을 기록했다。

日本 9개도시를 순회하며 10일간 라운드로빈방식으로 벌어지는 이번 월드컵남자선수권대회의 패자에게는 84년로스앤젤레스올림픽출전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미 출전권을 따놓은 蘇聯이 우승할 경우에는 준우승팀이 출전자격을 얻게된다。

◇첫날전적
蘇聯 3—0 브라질
폴란드 3—0 튀니지
日本 3—0 이탈리아
쿠바 3—2 中共

中共、사우디制壓 월드컵亞洲 豫選

【콸라룸푸르19日聯=聯】中共은 19일 콸라룸푸르에서 벌어진 월드컵 아시아·濠洲예선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0으로 제압하고 2연승을 기록했다。

海外演藝화제

엘리자베드·테일러 뚱뚱해져도 人氣여전

演技보다 잦은結婚이 더話題

세계 영화팬들의 공유물이 되다시피한 배우 엘리자베드·테일러의 사생활이 아직도 화제의 꼬리를 물고 있다。그중 하나가 최근 발간된 키티·켈리의「엘리자베드·테일러—마지막 스타」。사이몬 슈스터社가 초판으로 15만부를 찍어왔는데 키티는 엘리자베드를「비범한 인물이라고 칭찬한다。

키티에 의하면 지금까지55편의 영화에 출연한 엘리자베드의 연기를 기억할수있는것은 5편내외。하긴 그가「버터필드8」로 오스카상을 받았을때도 이상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동정으로 주어졌다는 뒷얘기가 나돌았었다。

키티는 이런 엘리자베드가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은 그의 사생활 즉 여러번의 결혼과 이혼 탓이라고 분석하고있다。키티는「그가무대에 나서면 입도 열기전에 박수부터 터져나온다」면서『엘리자베드는 살아 숨쉬는 소프오페라며 모두가 구경하고파하는 교통사고같은여인』이라고 말했다。

이젠 뚱뚱해져 무거워 보이면서도 강렬한 미모를잃지 않고 있는 엘리자베드의 인기는 식을줄 몰라 그가 현재 LA서공연중인 릴리언·헤르만의「작은 여우들」의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되는가하면 그를 둘러싼 허튼소리들이 연일 흘러나와 가십꾼들을 심심치 않게하고있는 실정이다。

엘리자베드는 살아있는 전설이되어버렸는데 ABC TV도 곧 그의 자전적 영화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준비중에 있다。

◇엘리자베드 ◇링고·스타 ◇제임스·가너 ◇데이비드·니번

링고·스타 名優修業위해 안간힘

◇…전비틀즈의일원링고·스타가 비틀즈시절 번돈으로 알부자가된 링고는 성공적인배우가 되기위해 무던히도애를 썼지만 여의치 않자「동굴인간」공연인연으로 결혼한 영화배우출신아내 바바라·바크와 함께 독립제작사를 만들기로 결정하고『이제 단역아닌 심각한 역을 반드시 해낼것』이라고 호언장담。

링고는 본업인 음악에도 충실, 오는12월 새앨범「멈춰서 장미의 냄새를 맡으라」를 내보내는데 이는 2년만의 새작품으로 아내 바바라의 격려에 힘입은것이다。6년만에 고향인 영국에 돌아가 자신의 세자녀와 바바라의두자녀와함께 살고있는 링고는『41세가 되었어도 나를 소년이나 비틀즈의 드러머로밖에 생각 않는데는 질색이다』면서도『그것이 내 운명인가보다』고 한숨。

데이비드·니번 新作小說「천천히…」각광

◇…오스카상을 탄 영국의 명우 데이비드·니번이 소설「천천히 가고 빨리 돌아오라」(더블데이사출판)를 출판,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고있다。

그는 이미 두편의 회고록을 내놓아 찬사와 함께 돈도많이 벌었는데 첫번으로손댄 소설도 전례를 따를 것같다。

「천천히 가고…」는 로맨틱한 소설로 2차대전전 영국과 할리우드、2차대전에 휘말린 영국과 종전후 할리우드등 폭넓은 시간대와 장소가 배경。미국과 폴란드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거구의「금발머리스타니·스톨리모브스키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엮고있다。스타니는 귀족의 혈통을 지닌영국연극배우 팬도라·브라이스에 심취、그가 할리우드로 진출하자 사랑을 따라 LA로 옮겨가며 낙천가 …위대한 사람의 결함을 현실화시킨다。

위트와 유머가 섞인 이 작품은 작자의 개인적 역사를 무의식적으로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는데 비평가들은 니번이 연기자로만 그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칭찬。

「유인원타잔」외설시비겪던 존데렉 새 作品선 "노출없다" 제작취소당해

◇…아내 보·데렉을 온통 발가벗기다시피해 출연시킨「유인원 타잔」의 감독 존·데렉이 이번에는 유체파 보를 너무 벗기지 않았다 해서 각본까지 다 써놓은 영화가 제작이 중단됐다。

「유인원 타잔」은 보의과잉노출로 법정문제로까지 비화, 법정명령대로 나체장면을 대거 자르고서야 상영됐는데 존의 두번째 감독작품이 될번했던「해적 애니」에서는 보가 너무 점잖다고 해 제작이 중단된것。CBS필름이 제작할 예정이었던 이 영화는 처음 각본을 제작자 맘에 안들어 수정했으나 그래도 맘에 안차 아예 손도 못대고 말았다。존은『언제는 영화가 음탕하다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점잖다고 받아들이지않는다』고 투덜。【LA=朴興津기자】

뉴델리의 南北對決
아시안게임 誘致여부 27일決定
한국 施設과運營능력 앞서 五輪개최지로 有利한 입장
北韓은 申請書 제때못내 자격瑕疵

西獨 바덴바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 88년 하계올림픽 서울유치에 성공한 한국은 올림픽개최에 앞서 86년도 제10회 아시안게임을 서울에 개최키로결정, 대회유치에 따른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놓고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印度 뉴델리서 열리는 AGF(아시아경기연맹)총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AGF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32개국인데 이번 뉴델리총회에서 각NOC(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최대 3명의 대표가 참가할수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70~80명의 대표가 참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장 시설을 비롯하여 가장 완벽한 개최능력을 갖춘 한국은 AGF총회개최 90일전에 아시안게임 유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AGF헌장에 따라 80년4월유치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했으며 북한과 이라크는 기일을 넘겨 뒤늦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는것。

한국이 아시안 게임 서울개최를 열망하고있는것은 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 아시아의 친선과 단결을 촉진하기위해서는 올림픽개최에 앞서 아시안게임을 치름으로써 아시아인들의 저력을 과시하고 각종 경기시설과 대회운영능력등을 사전 점검 한다는 의미가 있다。AGF창설멤버인 한국은 한국동란때를 제외하고는 역대아시안게임에 계속참가, 아시아지역의 스포츠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지 않았다는점에서 더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KOC는 한국이 AGF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해왔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서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본래 아시안게임 유치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한국의 유치를 방해하기위한 정치적술책으로 뒤늦게 일부 공산권을 업고 유치신청을 했으나 경기장시설 뿐만아니라 숙박·교통·통신시설등이 한국에 월등히 뒤져있다는 사실이 AGF조사단의 보고서에서 확실해졌다。북한은 79년 4월 平壤세계 탁구선수권 대회때에도 한국의 대회참가를 확약하고서도 단일팀 구성등을 이유로하여 한국선수단의 入北을 거절했던 선례가 있었다。

한국은 전세계의 모든국가들과 활발한 스포츠교류를 하고있으며 우리정부는 73년6월23일 선언이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도 문호를 완전개방, 86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모든 회원국에대해 자유롭게 경기에 참가하고 선수·임원·기자·관광객 등에 대한 신변보장을 약속했다。또한 남북한 단일팀 또는 북한 단독팀의 참가도 보장하고 있다。

아시안 게임의 개최지가 순수한 스포츠차원서 대회개최능력·시설·환경등 객관적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면 한국의 유치전망은 낙관적이다。이번 총회첫날인 26일에는 86년아시안게임 개최지에 대한 조사단 보고서 내용이 토의되며 27일에는 제9회 아시안게임(82년 印度)경기일정과 종목、대회준비진행문제가 보고、토의된다。【金在契기자】

메아리
北의 88五輪 트집

우리 선수단의 참가를 막아 버리고 79년 평양에서 열렸던 세계탁구대회는 순수한 스포츠무대가 아닌 정치선전장이었다。

선수단과 보도진엔 안내라는 감시원이 따라붙었고 경기장에선 북한심판의 비스포츠맨적인 행동이 빈발했다。이대회가 끝난후 미국대표단은 지금까지 본것중「가장 괴상한 탁구대회」였다고 털어 놓았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지는 그때 북한의「정치연극」을 이렇게 묘사했다。「1936년 나치시대 올림픽이후 소규모 대회치고 그렇게 이념적 열기에 가득찬 스포츠행사는 없었던것 같다」

1개의 홀에 18개의 탁구대를 설치하고 동시에 경기를 진행시키는 질식할듯한 분위기였다。

데일리·메일은 그광경을『마치 호텔주방에서 한꺼번에 1천개의 달걀을 프라이 하는것 같다』고 비꼬았다。

일본기자들은 조총련으로부터 평양에 가면 자유롭게 보고 쓰며 사람들을 만날수 있다고 들었다。그러나 金日成독재와 동상을 비난한 어느기자는 보복추방을 당해야만 했다。이것이 북한스포츠의 실상이다。

86년 아시안 게임유치를 놓고 서울과 평양이「場外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당초 마감전까지 개최의사를 뚜렷이 밝히고 신청서를 낸것은 우리나라뿐이었다。AGF가 갈팡질팡하며 개최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평양과 바그다드가 끼어들었다。

평양의 신청의도는 뻔하다。「개최」가 아닌「방해」에 목적을 둔것이다。일본에 넌지시 아시안게임개최를 권유하는 얄팍한 태도에서 그「속셈」을 쉽게 읽을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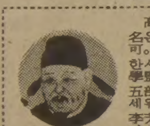
우리는 이미 88년 하계올림픽개최라는 더 큰별을 따놓았다。북한은 서울올림픽이 분단을 고착시키고 2개의 한국을 조작하는 일이라고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

논리학에서 하나의 主語에 대해 서로 배제하고 부정하는 대립적 판단이 나올때「矛盾」이라고 한다。아시안 게임개최를 요구하면서 올림픽을 비난하는 북한은 어이 없는「자기모순」에 빠져있다。

AGF조사단이 지난10월 남북한을 다녀갔지만 명분으로나 실제의 시설로나 판단은 이미 나와있다。뉴델리에서 벌어질 우리대표단의 스포츠외교에 다시 기대를 걸어 본다。

文學의 名言

鄭夢周 <1337~1392>



高麗末의忠臣, 儒學者 初名은 夢蘭 夢龍 字는 達可。호는 圃隱, 高麗三隱의 한사람。공민왕때 成均館學監으로 있으면서 開城에 五部學堂과 地方에 鄕校를 세워 儒學의 진흥을꾀함。李芳遠에 의해 善竹橋서 피살。「圃隱集」

人心의 의혹이 온갖일의 화근이 된다

天下의 國家는 반드시 大計를 먼저 정한다고하거니와 大計가 정해지지않으면 人心이 疑惑되어 배반하니 人心의 의혹은 온갖 일의 화근이 된다。

× × ×

鄭夢周는 24세때 科擧에 응해 3場에서 잇달아 壯元을한 수재였다。2년후 恭愍王11년 藝文檢閱에임명되면서 官界에 첫발을 디뎠으니 그는 후에 李芳遠의 심복에 살해되기까지 30여년간 官界에 머물며 국내외의 갖은 복잡한 문제들을 잘처리해 나감으로써 크게 명성을 떨쳤다。

특히 明과 日本과의 外交문제에 있어서 다른사람들이 감당못한 어려운 일들을 수행, 훌륭한 성과를 거둔것은 그의人品이 뛰어났다는사실을 말해주는것이기도하다。

그는 黃海와 玄海灘의 거친물결을 헤치며 내왕하느라 분주하고 피곤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잠시도 詩作을 게을리 안했다。「圃隱集」에 실려있는 훌륭한 作品들속에서 그가 外交임무를 수행하는도중에 지은것이 큰비중을 차지한것만봐도 잘 알수있다。

그는 평소에 시작을 무척 좋아했다。詩想이 떠오르면 아무데서나 심지어는 뒷간에서도 붓을들었다。

그런만큼 그의 전생애에서 詩作생활은 그비중이 學問이나 政治못지않게 컸다할수있다。그러나 威化島回軍후는 國運을 만회해보려고노심초사, 詩作에 힘쓸 겨를이 없었다。당시 그는 門下侍中이란國家重臣으로 高麗王朝의 가냘픈 운명을 떠받치던 마지막 대들보였다。

그는 한때 李芳遠의 유혹도 받았지만 유명한「丹心歌」로 이를 뿌리치고 마침내는 恭讓王4년(1392) 56세로 善竹橋에서 살해당하고만다。그가죽은지 석달만에 李氏朝鮮이 섰다。圃隱은 高麗末期 우리나라에 전래한 性理學에도 큰 견식을 가졌던것은 주지의사실이다。

그가 成均博士였을때 講說은 너무도 특이해서 보통사람이 상상도할수없는것이었다。李穡은「몽주가 理를 논함에있어서는 횡설수설이라도 理에맞지않은것이없다」면서 東方理學의시조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性理學관계의 저작을 한권도 남기지 못했다。

바꿔말하면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고넘어서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업적을 남길만한 경지에는 들어서지못했던것같다。李珥는 이렇게 평한적이있다。

「그는 儒者의 기상은 있었으나 미처 그學을 성취시키지는 못했다。그의행사를 더듬어보면 그는 忠臣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文集에서 性理學에 관한 서술을 찾을수는 없다。

홀든죽음 자신過失 滿醉로 머리부딪쳐

【산타모니카=聯】미국의 명우 윌리엄·홀든의죽음은 단순한사고사였으며 이미 1주일전에 사망한것으로 밝혀졌다。

홀든의 死因을 조사중인 경찰당국은 홀든이 술에 취해 그의 침대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너무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망한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경찰당국은 홀든의 시체부검 결과 혈액속에 알콜성분이 22%에 이르렀고 그의 부엌에선 그가 마시다 남긴 보드카가 4분의1병쯤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홀든의 시체는 거의 피범벅이 되어있었으며 죽은지 1주일쯤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한다。

流星의 賦 <240>
李炳注作 李友範畵

感傷異國月 ⑥

천이휴(千利休)는 수길의 다도(茶道)에 있어서의 스승이며 70세 노령이었다。

수길이 조선에 출병(出兵)할것을 서둘고 있다고 들은 이휴는 사까이(堺)의 거소에서 백리 길을 걸어 경도(京都)로 나왔다。그 당시 수길은 경도에 취락제(聚樂第)란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거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길을 만난 자리에서 이휴가 말했다。

『조선에 출병한다느니 명국(明國)을 정벌한다느니 하고 서들 것이 아닙니다。전하(殿下)』

『무슨 소리가 이휴?』

수길의 말끝이 거칠었다。

『조선은 바다를 북하여 천리 저편에 있는 나라、명(明)은 그 보다 먼 만리 저편의 나라에있읍니다』

『천리、만리가 어떻단 말이냐』

『그 먼 곳에 병사를 보내 이겨보았자 득이 될 것이 별로 없을줄 압니다。그런데 확실한 승산을 세울수도 없는 일입니다』

『뭐라구?』

수길의 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그래도 이휴는 굽히지 않았다。

『많은 군사가 이역의 땅에서 죽을 것이 아닙니까。그리고서도 얻는 것이 없다면 크게 후회할 일이 아닙니까』

『누가 어째서 후회한단 말인가』

『국내가 어떻단 말인가』

『보다도 국내를 잘 다스리시옵소서』

『이제 겨우 천하가 통일 되었으니 병사(兵士)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기엔 일본이 너무나 좁다』

『백성들에게 넓은 땅을 주어 활달하게 살리고 싶은…』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에 수길의 분노는 드디어 폭발했다。

『배 먹지 못한 놈이 나에게 경륜(經綸)을 가르치려고 하는가。언제 너에게 정치에 주둥아리를 놀리라고 했던가。나가라、당장 나가라』

그래도 이휴는 사과하지 않고 직간(直諫)하는 편지를 썼다。

『…무력(武力)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것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노릇이다』

고 간곡한 이유를 쓰고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정책으로 해외에 진출하되 우리의 정책에 동조하게 되어 이웃이고 대명국(大明國)과 무역(貿易)의 길을 틔워준 것인 즉、이 판국에서 무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다도(茶道)의 정신으로 장차의 미과(美果)를 기대하도록 하심이 현명할 것이옵니다』

하고 지성(至誠)을 피력한 것이다。

이것은 상전(上典)인 신장(信長)을 넘어서서 세계에 일본인의 전인미도(前人未到)의 기개(氣槪)를 보여줄 양으로 야심만만한 수길로선 용서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수길은『당장 가서 이휴란 놈에게 절복(切腹)을 명하란』고 엄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길에게 있어선 무이(無二)의 충신이라고 할수 있었던 천이휴는 70세의 주름잡힌 배를 갈라 죽었다。

이것이 곧 수길에게 있어선 망조(亡兆)라고 할수 있었지만 망할 인간이 망조를 알 까닭이 없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Q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람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 초 대 의 말 씀 ◆◆◆

한인신용조합 창립5주년 및 사무실 확장이전

조합원및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인신용조합은 1976년 10월 창립 발족한 이래 5년을 지나 이제 조합원 1200명 자산 180만달러로 성장하여 우리 교민만을 위한 대중금융기관으로써 역활을 담당하게 되었읍니다. 이는 오로지 교민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으로 깊이깊이 감사올립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보다 알찬 대조합원 써비스를 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확장이전하여 지난 12월2일부터 사무를 하고 있사오니 조합에 성숙한 모습도 보실겸 아래와 같이 마련한 소연에 왕림 참석하시와 자리를 한층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1981년 12월11일(금) 오후5~8시까지
※이날은 준비관계로 오후3시까지 영업합니다.

장 소: 한 인 신 용 조 합 · 641A BLOOR ST. W.
(도너스샵 2층)
※개별초청장은 생략 합니다

현행예금 이자율표

1981년 11월 24일 현재

예금종류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500불이상	5천불이상	5천불이하
30 - 59	15¼ %	14½ %	14 %
60 - 89	15.0%	14¼ %	14 %
90 - 364	14 3/4%	14¼ %	14 %
보통예금 Daily Savings	14¼ %	13 3/4%	

토론토한인신용조합 이사장 한 상 훈 드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5491

구 인

스토아 헬퍼구함(주중)
KINGSTON & MIDLAND
☎ : 266－6355

FULL TIME가게 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 536－4533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목, 금, 토, 일)
DON MILLS와 SHAPPARD
☎ : 491－9701

쥬스바 파타임 헬퍼구함
☎ : 438－0403(오후6시연락바람)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에드몬톤에 위치한 자동차수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실 남자분 구합니다.
☎ : 533－2364(Mrs. 김)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버라이어티 스토아 남자 헬퍼구함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 4시~8시반까지
39BELSHAW PLACE
☎ : 368－8147

FAST FOOD 햄버거 식당에서 일하실 분을 구함
(BRAMPTON 지역)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하나 이런
일에 흥미있는 분. 나이트 쉬프트 우대함
FIRE PIT.(HWY 7 & 케네디 로드, 브람톤)
☎ : 456－2828
ASK : PAUL KIM

매니저 구함
도나스 샵과 햄버거샵을 완전히 맡아서
하실분.(약간 보증금 요함)
대가족 원함. 좋은조건
1468 QUEEN ST. W.
직접내방 요함(Mr. 박)

매매 및 양도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BATHURST & QUEEN근처 : 방6개 있는 집, 좋은조건
금방 팔 수 있고 좋은 가격과 복덕방 안낌
☎ : 445－9486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터 김

도나스샵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4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231－1740 MRS. 강

버라이어티 스토아 비지네스
빌딩+분리된 3베드룸 방갈로 스카보로지역
좋은 인수조건 모게지 알선가능
CALL : BERNIE SEMELHAGO
☎ : 494－1651, 291－9879
MONTREAL TRUST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GE ONT. LTD. REALTOR

급 매
매우 깨끗한 2베드룸 아파트와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급매합니다.
사거나 팔기를 원하시는분은
Ms. 메리 이바타에게 연락요
☎ : 270－3930
277－2490
MONTREAL TRUST

대단히 성업중인 드라이 크리닝 비지네스
를 건강상 이유로 양도코자함.
①금년도 매상 목표액 : $150,000 이상
②금년도 순수익 목표액 : $60,000 이상
☎ : 493－0429 (저녁8시~9시 연락바람)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스토아 급매
멀 안에있는 버라이어티 기프트샵을 급매합니다
주매상 : 3천2백달러
아스킹 : 3만5천달러
전화 : 223－8805
(MR.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에 알맞는 도바코트와 GEARY코
너의 스토아. 경쟁이 없는지역 1200Feet 렌트에 좋은
OFFER를 줌 ☎ : 535－175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커피샵 매매
리스 : 17년. 렌트 : 450
월~금 영업 영업시간 8시반~6시
의사빌딩 내에 있음
☎ : 767－4653, 447－9736(Mr. Wong)

급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장비일절 최저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699－2442

①버라이어티(주매상 5천, WESTON)
②버라이어티와 핀볼(주6일, 스카보로)
③그로서리(년매상 $700,000 주6일, 토론토)
☎ : 481－3443, 745－5485(황순일)
CANADA PERMENANT TRUST CO. REALTOR

스토어 장비 팝니다.
1500~2000스퀘어피트 꾸밀수 있는 장비임.
☎ : 886－2743
881－2019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 $29000
☎ : 423－9899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매매 또는 집세 놓습니다
4 Bedroom 4 washroom
(Finch x Victoria Park)
Tel ; 862－1433 493－8792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거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체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 · 카텐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콘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50% OFF)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기 타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니폰 · 비데오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지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3120 조 혜 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터. 리

SUREKILLER
각종벌레, 캐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남

양 장 점

섈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